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P. J.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경 주

2015년 8월

P. J.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지도교수 양진건

김 경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김경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백정환 
위 원 이인희 
위 원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8월

감사의 글

논문을 쓰기 위해 걸어왔던 과정들을 돌이켜 봅니다. 특히 논문 주제가 여러 번 바뀌는 우여곡절의 과정 속에서 맥그린치 신부님의 사회사목활동이 논문 주제로 정해졌을 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 118)입니다.

내 하찮은 지식으로 논문을 써 내려가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논문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과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주에서 만60년을 사랑의 교육을 실천한 맥그린치 신부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118)

【국문초록】

P. J. 맥그린치 신부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김 경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인간의 삶은 정규교육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 및 기술의 성장이 아닌 인간의 삶의 성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의 성장과정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최근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등 삶의 질 향상의 바람을 타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Glocalization’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교육 패러다임에서 주체적 학습 중심의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삶의 상호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 단위인 지역사회에서 삶의 성장과정과 연결된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실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성장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파란 눈의 신부’, ‘돼지 신부’로 알려진 맥그린치 신부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회사목 활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맥그린치 신부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혹은 과정으로

서의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문헌분석 위주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내용으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는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며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회복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사회사목 활동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는 실천적 의식개선 활동 및 직업교육 등의 현실적 삶과 연결된 교육활동과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H클럽 및 이시돌협회를 조직하여 교육활동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맥그린치 신부가 실천한 교육활동의 특성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 둘째 지역사회 역량증진을 통한 종합적 발전, 셋째 교육지원을 위한 조직화, 넷째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이다. 그리고 정민승(2002)의 교육자의 역할모델을 토대로 교육자로서의 맥그린치 신부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육이 지역사회개발의 필수요소이며, 지역사회복지확대와 같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이론적 논의를 하나의 실천적 사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오늘날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및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후에도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을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맥그린치,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발전 교육모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5
2. 지역사회교육	8
III. 연구방법	12
1. 연구방법의 개요	12
2. 연구대상	13
3. 자료수집 및 분석	15
IV.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	20
1.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계기	20
가. 복음화와 사회사목	21
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랑의 실천	23
2.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내용	28
가. 지역사회조직	28
나. 지역사회개발	34
다. 지역사회복지	44
라. 인간성회복	50
3.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흐름	53

V.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55
1. 교육활동의 내용	55
가. 지역사회교육	56
나.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	59
2. 교육활동의 특성	66
가.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	66
나. 지역사회 역량증진을 통한 종합적 발전	67
다. 교육지원을 위한 조직화	69
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	70
3. 교육자로서의 맥그린치 신부	71
4.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실천모델	76
VI. 요약 및 결론	81
1. 요약	84
2. 결론	84
3. 제언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5

표 목차

<표Ⅲ-1>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내역	13
<표Ⅲ-2> 맥그린치 신부의 시상 내역	15
<표Ⅳ-1>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개발 요약	44
<표Ⅳ-2> 교육소외의 유형	45

그림 목차

[그림Ⅲ-1]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	17
[그림Ⅲ-2] 사회사목 활동의 요소와 흐름	18
[그림Ⅲ-3]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의미	19
[그림Ⅳ-1]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흐름도	54
[그림Ⅴ-1] 맥그린치 신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58
[그림Ⅴ-2]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	65
[그림Ⅴ-3] 학습이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과정(Barnsley모델)	77
[그림Ⅴ-4]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사회교육 모델	77
[그림Ⅴ-5]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	78
[그림Ⅴ-6]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I	79
[그림Ⅵ-1]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I	8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하고 졸업을 함으로서 끝마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과정에 국한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존. 듀이(1916)는 교육은 본래 인간의 생활(Life)이며 그 성장(Growth)이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한 개인의 전체 인생이며, 동시에 그의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다(황종건, 1994 참조).

이처럼 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생활의 성장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역사는 “사회의 교육”으로 시작하며, 또한 “사회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학교라는 형식적 교육기관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집단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건 또는 비형식적이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학교교육기관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도 인간 성장의 매우 중요한 면, 즉 “퍼스널리티”, 가치관, 태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이 학교 이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하는 것이다(황종건, 1994:3).

인간의 삶은 정규교육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 및 기술의 성장이 아닌 사람의 성장과 인간의 성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의 성장과정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최근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등 삶의 질 향상의 바람을 타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Glocalization’¹⁾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식전달의 수동적 학교교육 패러다임에서 인간 삶의 성장과정으로서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실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1)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용어

시대상을 반영하듯 OECD에서는 1992년부터 도시의 학습 여건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 학습도시사업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²⁾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령으로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이처럼 지역사회와 평생학습의 관계는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원형은 지역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이희수, 2002).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개념과 인간집단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시 하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집단적 변화(김남선, 2013)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지역사회교육의 역할(김익균·고순철, 1997)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은 개인의 삶의 변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로 캐나다의 안티고니시 운동이 있다. 안티고니시 운동은 교육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운동이며 사회교육자들의 헌신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해주, 2011).

한편 제주에서도 안티고니시 운동과 같은 지역사회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파란 눈의 신부’, ‘돼지 신부’로 알려진 맥그린치 신부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회사목 활동이다.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도 선교에 앞서 지역의 빈곤과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실천적 삶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변

2)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nile.or.kr>

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내생적 지역사회개발, 교육 및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총체적발전에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지역사회교육의 역할(김익균·고순철, 1997)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변화를 위해 실천적 삶을 살았던 그의 활동은 지역사회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힘썼고, 사회개혁의 근본 기능을 교육에서 찾고자 한 사랑의 교육자 페스탈로치의 활동과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맥그린치 신부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지역사회개발측면(양영철, 1990), 지역사회복지측면(권은진, 2014)의 연구와 가톨릭 신부로서의 선교측면(양창조, 2011)에서 다루어져 왔을 뿐 교육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및 과정으로서의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단순히 지역사회 경제발전이 아닌 인간 및 사회 종합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의 교육활동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은 인간이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세워 나가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의 개인적인 과정은 물론 사회적 과정 전반에 걸친 인간화를 지향하는 규범적 활동’(유현옥, 2005:151)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어낸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에서 교육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학습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및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서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반과 과정으로서의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회복의 복합적인 내용을 그의 사회사목 활동에서 도출한 교육활동의 내용과 연결하여 교육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이며 왜 하였는가?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려면 우선 그의 생애와 그가 실천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그가 실천한 사회사목 활동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와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사목 활동의 복합적 특성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나타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 내용에서 실질적 교육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사목 활동 각 요소에서 교육적 실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사목 활동의 각 요소와 교육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어떠한 모델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종합하여 사회사목 활동의 각 요소와 교육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하여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드러나는 교육활동과 사회사목 각 요소들의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모델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교육이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에 앞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의 원인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였고 농촌자립사업, 교육사업 및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총체적발전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⁴⁾’으로서 지역사회개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이라는 활동은 반드시 교육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Lowry Nelson, 1960:414-15), “교육이 근대화로의 문을 여는 열쇠”(Habrison & Myer, 1964:1), “근대화 과정의 핵심이 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의 과정”(Lucian Pye, 1965:140-50)이라고 한(황종건, 1994:359 재인용) 것처럼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은 지역사회교육의 중심방법이기 때문이다(김남선, 2013 참조). 사회교육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각각 다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황종건, 1994). 학교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을 의미하고,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교육은 학

4) 대통령령 제1384호(1958.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의미하는 광의적 영역에서의 사회교육개념은 평생교육과 매우 유사함으로 혼돈된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총체적 의미가 강한데 비하여 사회교육은 학교 밖 즉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김남선, 2013:41).

사회교육의 개념을 정리해 온 학자와 교육기관의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교육을 비교적 넓은 뜻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좁은 뜻으로 한정하려는 견해이다. 전자는 교육을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하자는 이론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외 학습을 사회교육으로 보는 것이다(김남선, 2013).

우리나라에서 1982년 말에 처음 제정, 공포된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역시 광의로 규정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은 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김진화 외, 1997). 또한 교육 대상의 발달과업상의 특징에 근거하여 가정에서의 유아교육, 학교에서의 청소년 어린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성인교육(학교외 청소년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기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강조점에 따라 비학교교육(nonformal education) 또는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등의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황중건, 1994).

2000년대 들어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사회교육이 평생교육 용어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김진화 외, 2007). 평생교육의 제창은 단순히 원래 오래 전부터 기능해 오던 교육, 즉 평생을 통한 학습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다. 원시시대로부터 인간의 교육은 평생의 학습으로 특징 지워졌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의 노력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었다. 만일에 이러한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중지할 때에 그 인간은 곧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상실함으로써 결국에는 부적응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자연 도태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교육은 생활의 필요조건이며 평생을 통한 과업인 것이다(황중건, 1994).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Lengrand(1970:50)은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 각기 자신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그 개념을 밝힌바 있다. 또한 Dave(1976:11)는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활동 전부를 포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조용하 외, 2001:40 재인용).

김중서(1982)는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초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김중서, 1982:13)고 이야기 한다.

차경수(1982)는 “교육방법을 학습한다”거나 “학습능력을 학습한다”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평생동안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평생교육은 이처럼 교육의 개념을 시간적으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연장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느 장소에서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의 사회화, 사회의 학교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평생교육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사람의 한평생이 교육기간이 되고, 사회전체가 교육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차경수, 1982:46).

한편 평생교육법(2000.3)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사회교육법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현실적으로 교과중심, 공교육중심의 학교교육을 제외한 협의의 평생교육(오혁진, 2014)이다.

2.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의 개념은 나라별,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영어의 ‘community’로서 공동을 의미하는 ‘common’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동자치체를 의미하는 ‘communal’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김남선, 2002). 전통적으로 ‘community’는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그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오혁진, 2014).

미국의 사회학자 Hillery(1955)는 ‘community’를 정의한 논문 94편을 분석하여 ‘community’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일정한 지리적 영역(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유대감(common ties)을 주요 공통 요소로 보고하였으며(이소연, 2014 재인용), 일반적으로 ‘community’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유대감’(common ties)을 공통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된다(김남선, 2013). 오혁진(2014)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community’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지리적 영역의 중요성이 약해짐에 따라 개념상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고, ‘community’가 지역성을 주로 반영할 때는 ‘지역사회’로, 공동성을 주로 반영할 때는 ‘공동체’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하며 공동체성이 강조된 ‘community’를 보다 분명하게 ‘local community’로 표현한다.

이처럼 지역은 개별학습자의 자아실현의 장이 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장이며,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장이며, 관계 형성의 상호작용의 장이며, 지역 그 자체가 교육적자원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학습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홍숙희, 2011 재인용).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태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질 향상과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이 되어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교육은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다(이소연, 2014 재인용).

그리고 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생활의 성장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역사는 “사회의 교육”으로 시작하며, 또한 “사회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학교라는 형식적 교육기관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사회 안에

서 여러 가지 집단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건 또는 비형식적이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학교교육기관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도 인간 성장의 매우 중요한 면, 즉 “퍼스널리티”, 가치관, 태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이 학교 이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하는 것이다(황중건, 1994:3).

교육은 인간의 생활이며 성장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로서 주어진 집단속에 태어나는 인간은 그 생명의 지속과 성장을 위하여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형성과 그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사회는 창조적인 힘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교육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역량(empowerment)이 증대된다(김남선, 2013:12~13).

지역과 사회교육의 관계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긴 하나 매우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이 평생교육의 원형(이희수, 2002)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교육개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실천되어온 가정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교육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남선, 2013). 지역사회교육은 학교개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학교 논의, 지역의 경제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논의,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역사회실천 등이 있어 왔다(손유미, 2005). 또한 지역사회교육을 사회교육의 한 형태로 보거나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지역문제해결의 과정, 교육 활동을 통한 개인과 집단 대상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교육활동 일체, 공교육의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학교 바탕의 프로그램 이상의 지역사회발전으로 행하는 과정,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등과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중점을 두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홍숙희, 2011)을 살펴본 바도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교육은 다양한 지역 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뚜렷이 구별되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근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실천 모델이 존재(홍숙희, 2011 재인용)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준하여 지역사회교육을 개념화 시킨다면,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규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교육의 학문적 입장에서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은 지역사회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는 정규학교 교육과 가정교육과 같은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도 포함되어 있다(김남선, 2013).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에는 지역의 공동체적 성격, 지역의 자원 활용, 평생학습,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지역사회교육이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지역의 통합적 노력으로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 바 있다(김종서·주성민, 1990).

Jarvis(1983)는 지역사회교육 개념에 대해 ① 적극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행동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교육, ②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 ③ 학교나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선 성인교육(extra-mural adult education)으로 구분하였다. Jarvis는 지역사회교육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첫 번째로 한정하고 후자의 두 경우는 평생교육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정지웅 편, 2000).

정지웅(2005)은 지역사회교육은 일정한 지역공동체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이상적인,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하며, 일정한 단위의 지역에서 학교나 다른 교육 관련 기관에서 그 지역사회 내의 각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거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일체라고 하였다(홍숙희, 2011 재인용).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개념과 인간집단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시 하지 만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주민의 집단적 변화, 즉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추구하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남선, 2013).

이렇듯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 전체 측면에서의 지역문제 해결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이와 반면에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은 인간의 개인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되고 사회의 삶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곽삼근(2004)은 지역주민들을 변화시키는데 효율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제도나 체제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여기에서의 교육은 요즘 한동안 강조되어온 개인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잘 짜여진 지역사회교육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제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교육의 결과는 지역사회복지이며 지역사회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도입되는 전략이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활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교육이 전개되며 그러한 지역사회교육은 곧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게 한다(김남선, 2013).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개발 등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사회복지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이상적인 마을 만들기 및 살기 좋은 만들기는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은 개인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 의식개선,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견 등 단순한 지식적 함양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 의식 변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활동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교육은 공동의 노력 즉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조직을 통해 활성화 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발전 즉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가 함께 도모되는 교육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맥그린치 신부가 1954년 제주에 부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사목 활동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기 위한 것으로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사회사목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중심의 사례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Stake, 1995. 홍용희 외 역, 2000:13)이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목적은 현상에서의 통찰이나 발견 혹은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 실시하는 연구 형태(고미영, 2009)라 하며, 쉽게 이야기해서 총체적인 서술과 설명을 통해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발견 혹은 해석을 하는 것이다. Stake(2000)는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 연구와 도구적 사례 연구로 나누었다. 우선 본질적 사례 연구는 사례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연구이다. 본질적 사례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시행한다. 반면에 도구적 사례는 그 사례를 통해 어떤 다른 것을 알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사례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례가 다른 어떤 것의 예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사례를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것이다(고미영, 2009:24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질적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한편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략되고 전체적인 연구의 성격이 추상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지나치게 개별적인 분석단위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개별 분석단위들이 그려내는 결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유기웅 외, 2012).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맥그린치 신부가 1954년 제주에 부임한 이래 추진했던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사회사목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교회사목 활동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회사목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1928년 아일랜드 도네골 레터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맥그린치는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1945년 성 골롬반 신학대학에 입학하였으며, 7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1951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1953년 4월 부산에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1954년 4월 제주도 한림공소로 부임하게 된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왔을 당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4.3사건과 6.25전쟁을 잇따라 겪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에 앞서 빈곤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인간존엄성이 무너진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인간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현실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며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섰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이루어내었다.

맥그린치 신부가 전개한 사회사목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 <표Ⅲ-1>과 같다.

<표Ⅲ-1>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내역(1954~2010)⁵⁾

연월	내용
1954. 04.	제주 한림 도착
1954. 08.	한림성당 준공

5)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편(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성이시들 목장 홈페이지 <http://www.isidore.kr> 참조.

연월	내용
1957. 03.	4H클럽 조직, 가축은행 개설
1959. 03.	직조(수직)물 강습소 개설 (한림수직)
1961. 11.	성이시들 중앙실습목장 개설
1962. 05.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
1962. 10.	(재)성이시들농촌산업개발협회 설립
1963. 03.	PL-480 제2관 사료용 옥수수 도입승인, 개척농가 조성 착수
1964. 04.	성이시들 배합사료 공장 가동
1969. 09.	개척단지 조성사업기술 및 자금지원 (축산단지 40세대, 양잠단지 90세대 ; 제주도와 제휴)
1970. 04.	성이시들 의원 개원
1973. 03.	양돈 협업 농가 조성 (200세대, 기술 및 시설지원 및 사료지원 등)
1976. 12.	개척농가 조성 사업완료 (98세대)
1981. 10.	성이시들 양로원 개관 (당시 무의탁자 14명)
1982. 07.	성이시들 경로당 개관
1982. 09.	성이시들 노인학교 개설
1983. 07.	성이시들 양로원 증축 (북제주군 제1호로 인가)
1985. 05.	성이시들 노인학교 증축 및 노인대학으로 변경
1985. 09.	성이시들 한림(2학급 80명), 신창(1학급 40명) 유치원 개원
1986. 01.	성이시들(금악 새마을, 2학급 80명) 유아원 개원
1986. 02.	농·공 병행사업의 일환으로 치즈 공장 가동
1988. 03.	성이시들 농촌 노인복지회관 개관(북제주군 제3호 인가)
1988. 04.	농·공 병행사업 확장(치즈 가공공장내 우유가공공장 신설 가동)
1990. 09.	성 이시들 한림수직사 증축 준공
1990. 09.	성이시들 회관 및 성이시들 성당 준공
1991. 10.	삼피소 은총의 동산 축성
1993. 10.	성 이시들 사회교육연수원 설치 허가 (제주도교육청 승인)
1994. 10.	성이시들 젊음의 집 개원, 살레시오 수녀원 분원 설립
1999. 05.	성이시들 사회교육연수원(피정의집) 신관 신축 개관
2001. 10.	삼위일체 대성당 건립
2002. 03.	성이시들 복지의원 개원 (말기암 환자 무료진료)
2003. 06.	성이시들 양로원을 요양원으로 변경(북제주군 제2호 인가)
2004. 11.	성이시들 요양원 본관 증축 공사 준공
2004. 12.	성이시들 어린이집 준공
2007. 04.	성 이시들 복지의원(호스피스) 금악리 신증축 이전
2010. 12.	(재)성이시들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직 은퇴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여러 업적들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6년 5월 16일에 5.16민족상 산업부문 장려상을 시작으로 최근 2014년 12

월 19일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시상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Ⅲ-2>와 같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1973년 제주도 명예도민이 되었으며 그때 ‘임피제(M·P·J)’란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성(姓)은 Mcglinchey의 머리글자, 이름은 Patrick James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표Ⅲ-2> 맥그린치 신부의 시상 내역(1966~2015. 4월)⁶⁾

연도	내용
1966.05.16.	5·16 민족상 산업부문 장려상
1966.07.18.	농림부장관상(농촌 경제 부흥, 국가 경제 부흥)
1972.06.05.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1975.08.31.	막사이사이 국제이해부문상
1982.11.30.	내무부장관상(지역발전 헌신, 노인복지사업)
1990.10.27.	적십자 봉사상 금상
1994.09.03.	제4회 일가상 수상 사회공익부문
1996.12.13.	제1회 KBS지역대상 금상
2002.12.21.	제주도문화상 1차 산업부문
2004.10.02.	보건복지부 표창상
2004.12.11.	제주도지사 감사패
2014.10.31.	아일랜드 대통령 상(특별 공로상)
2014.12.17.	MBC 자랑스런 제주인 선정
2014.12.17.	제4회 협성사회공헌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4.12.19.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그린치 신부에 대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문헌은 「맥그린치

6) 임피제(P.J.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발전에 따른 연구. 임피제(P.J.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편, 성이시들 목장 홈페이지 <http://www.isidore.kr> 참조.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양영철, 2013)」,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박재형, 1993)」,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박재형, 2006)⁷⁾」,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와 출판물, 제주천주교회 100년사 등 이다. 특히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천주교 제주교구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1)에서는 가톨릭 사제인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폭넓게 설명하게 있으며, 사회사목 활동에 대해서는 농촌부흥운동과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둘째, 맥그린치 신부와 관련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관련 연구는 양영철(1990), 양창조(2011), 권은진(2014)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영철(1990)의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개발을 시혜(施惠)적 지역개발사례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실시와 고용창출,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의 성장거점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창조(2011)의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로 맥그린치 신부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펼쳤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선교사명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권은진(2014)의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로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지역사회에서 펼친 사회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을 지역사회개발가, 지역사회사업가,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 제시하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피제(P. J. 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⁸⁾(2015)에서 ‘임피제((P. J. 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발전에 따른 연구’를 통해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을 지역개발사업, 지역복지공동체, 지역협동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기념사업회의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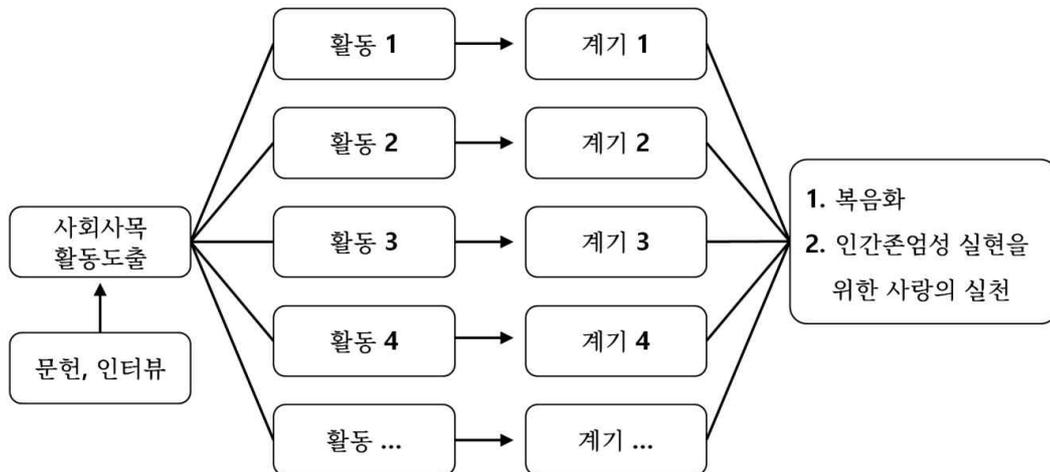
셋째, 맥그린치 신부에 대한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다양한 기사내용을 수집

7) 박재형의 1993년도 책의 개정판.

8)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개발정신과 방안을 정리 계승하고, 후진국 개발에 전수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1일 설립되었다.

하였으며 주된 기사내용은 제이누리가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⁹⁾에서 양영철 교수가 전하는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맥그린치 신부와 인터뷰 내용 및 그와 같은 지역 내에서 그의 활동을 함께하거나 지켜본 사람들과의 인터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내용을 조직화 하였다. 먼저 맥그린치 신부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사목 활동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계기를 도출한 후 그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를 종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Ⅲ-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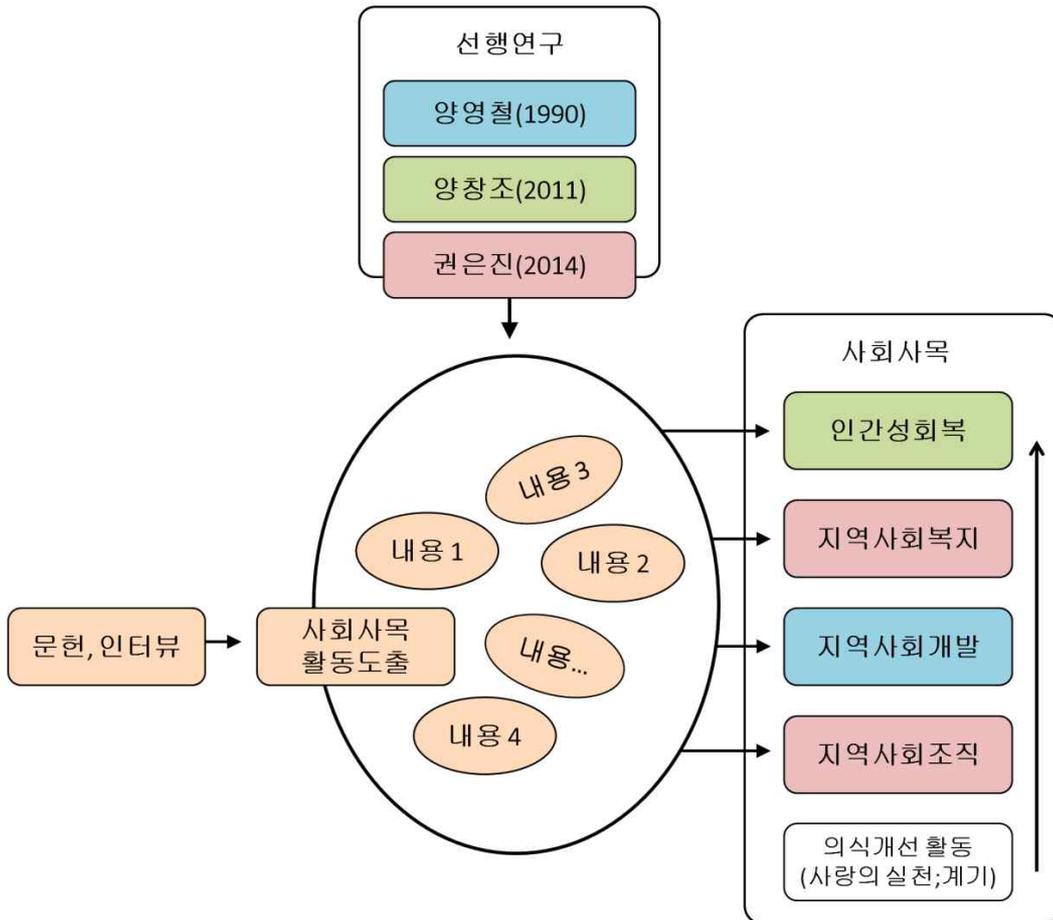


[그림Ⅲ-1]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

이후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을 각 내용별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회사목 활동의 각 요소를 도출해내었다. 참고로 양영철(1990)의 연구는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 중 지역사회개발 중심으로, 양창조(2011)의 연구는 인간성회복 중심으로, 권은진(2014)의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조직’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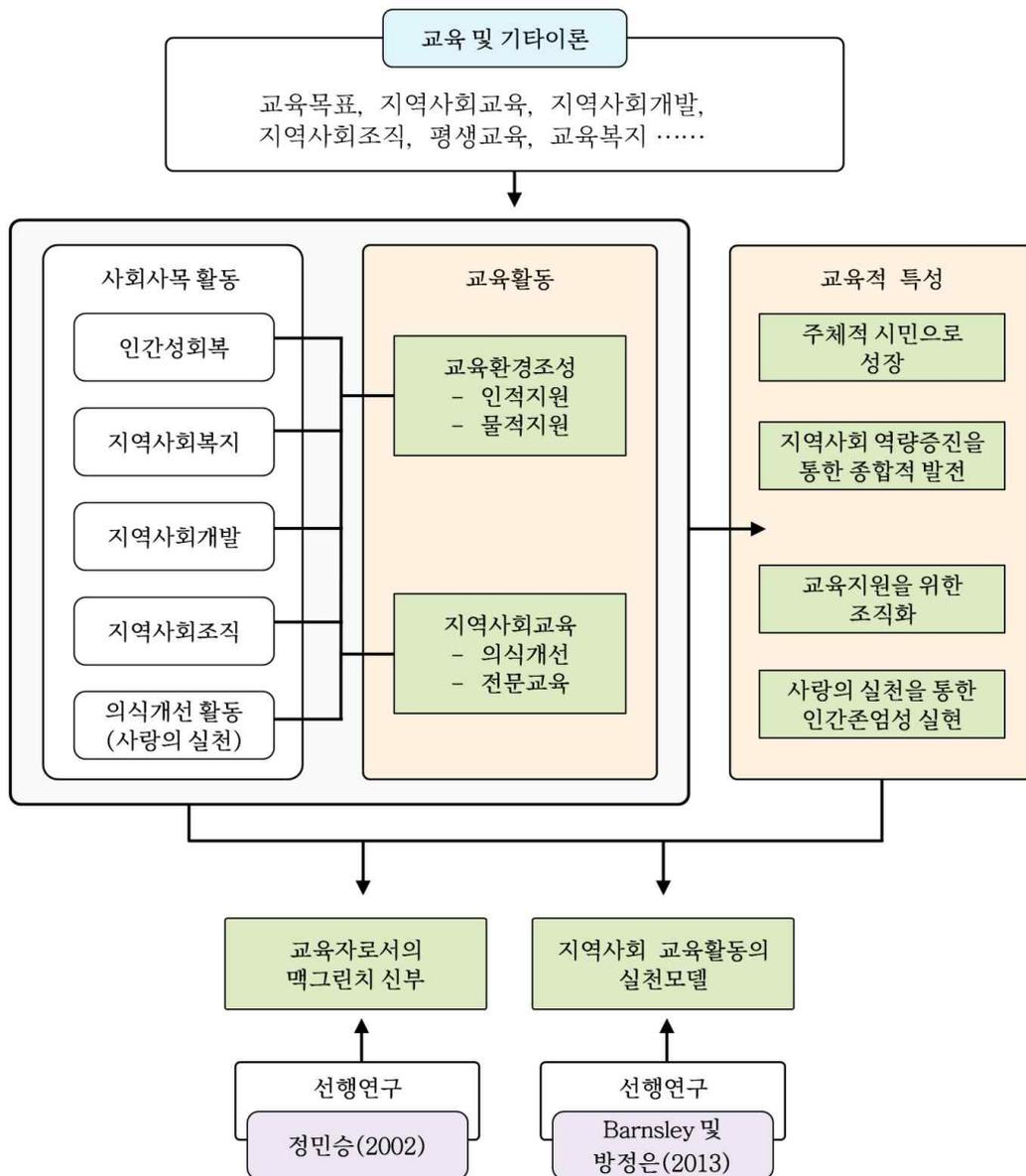
9) <http://www.jnuri.net>. 제이누리가 기획한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신구법진 지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두 번째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맥그린치 신부에 대해서 연재하였다.

다. 이후 도출된 각 요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그림Ⅲ-2]와 같다.



[그림Ⅲ-2] 사회사목 활동의 요소와 흐름

그리고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의 내용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사목 활동의 복합적 내용과 교육이론 등의 종합적 관계 안에서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그림Ⅲ-3]과 같다.



[그림Ⅲ-3]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의미

IV.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

사목은 어원적으로 목자(牧者)란 단어에서 나왔으나 그 성서적 의미는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보살핀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내용이 교회사 안에서는 교계제도의 교직자들이 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16세기 이후부터는 성직자가 성사집행을 하는 내용으로 극소화시켜 이해하였다. 즉 과거에는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사목이라 하여 이를 오로지 성직자의 임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널리 ‘보편적 구원의 성사’(교회헌장 1)¹⁰⁾인 교회가 세상과 관련을 맺는 모든 활동을 두고 사목이라 일컫는다.¹¹⁾

파란 눈의 신부, 이시돌 목장으로 널리 알려진 맥그린치 신부는 고향은 머나먼 아일랜드이지만 만60년¹²⁾을 제주지역에서 지낸 지역의 한 주민이자 농부였다. 그는 교회의 문제 이외에도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헌신과 봉사 즉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며 지역사회와 종합적 발전을 이끈 사랑의 사목자이다.

이 장에서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와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계기

오늘날 ‘사목’이라는 용어는 가정사목, 노인사목, 청소년사목, 노동자사목, 농민사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컬어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협의적 사목을 교회사목으로 그 이외에 광의적 사목을 ‘사회사목’이라 한다.

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4대 헌장 중 하나인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Gentium)’의 약칭(GoodNewsCATHOLIC 홈페이지. <http://www.catholic.or.kr>).

11) GoodNewsCATHOLIC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tholic.or.kr>.

12) 1928년 태생인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4월 제주에 정착하였고, 2015년 현재 제주에 정착한지 만 60년이 된다.

‘사회사목은 사회복음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목활동의 통칭이다. 이러한 사회복음화의 관심과 노력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계명에 따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왔던 것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교회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런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¹³⁾

이런 차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은 사제로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회사목 활동이다. 그의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은 인간존엄성 실현 즉 지역주민들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의 실천이었다.

가. 복음화와 사회사목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온 목적은 선교였다. 선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이 교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욱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이종홍 역, 1994)고 하였다.

또한 본래는 선교의 종속 개념이던 복음화가 이후 선교와 사목 및 교육, 의료, 자선 등 사회 개발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예비 선교의 의미까지 포괄하면서도 타종교나 타인에 대한 존경과 자유의 의미를 위축시키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된다(이성배, 1992). 이러한 차원에서 천주교 미래사목연구소에서는 사목대안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선교’ 구조에서 ‘복음화’ 구조로서의 대안이다. 기존 ‘선교’ 구조에서는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주는 이(또는 베푸는 이)’와 ‘받는 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일방향적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복음화’ 구조에서는 ‘모두’가 주는 이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받

13)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ritasseoul.or.kr>.

는 이가 된다. 복음화는 ‘스스로’와 ‘이웃’과 ‘세상’을 대상으로 삼는다.¹⁴⁾

맥그린치 신부는 ‘스스로’와 ‘이웃’과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를 실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인터뷰 자료에서 그의 복음화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꾸 발전, 발전, 경제적인 발전, 문화적인 발전을 강조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사랑입니다. 그 발전을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제대로 사랑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제대로 사랑받았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눔만이 나뉘는 막을 수 있습니다.”¹⁵⁾

맥그린치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사제로서 ‘인류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보편성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즉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 임무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최근 교회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가톨릭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황 레오 13세의 <레룸 노바룸>(노동현장, Rerum Novarum, 1891)이후 많은 회칙을 통하여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압당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강조하여 왔다.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사회운동은 넓게는 모든 사회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¹⁶⁾

맥그린치 신부의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도하에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태도, 곧 개방성을 바탕으로 둔 실천이다. 그는 자신의 사목을 펼치면서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향의 사목을 펼쳐야 함을 앎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실천이 함께하는 사목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양창조, 2011).

14) 천주교 미래사목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fpi.or.kr>.

15)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http://www.design.co.kr>.

16) GoodNewsCATHOLIC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tholic.or.kr>.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강조한 선교 원칙인 “서민들과 함께 있어라”(최진일, 2003:36)라는 민중 중심적 사목 활동에 충실한 활동을 펼쳤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과의 결속 안에서 증거생활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최진일, 2003:37 재인용)이다.

가톨릭 사제인 맥그린치 신부는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때로는 치유자로, 때로는 착한목자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양창조, 2011) 복음증거의 삶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역주민 의식개선, 사회개발, 교육, 의료, 자선 등의 사업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즉 맥그린치 신부는 가난한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데 있다’(이종홍 역, 1994)고 설명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랑의 실천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왔을 당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4.3사건과 6.25전쟁을 잇따라 겪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그의 사회사목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삶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인간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지역사회내의 정신적·물질적 현실 문제를 사랑의 실천으로 도와주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웃을 사랑하라. 일자리 만들어주면 진짜 도움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실천한 거죠 우리의 의미적인 도움은 정말로 상대방을 존엄성 있고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¹⁷⁾

17) 협성사회공헌상 인터뷰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9AA-EcRL90U>.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이웃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찾았죠.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죠.”¹⁸⁾

맥그린치 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일시적 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 즉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의식개선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학습자의 삶에서의 자기주도성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교육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정민승, 2002)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자립성 증진을 위한 의식개선 노력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조상들이 못한 일이니까 우리도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못할 거라는 생각,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버렸다(박재형, 2006:96). 다시 말해 물질적 가난은 결국 무지와 정신적 가난이 원인이었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도착하였을 당시 6.25전쟁이 끝난 직후라 미국 가톨릭 단체에 의해 지원된 음식과 옷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무상 원조 방식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농부와 어부,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토론을 했다. 교사와 사업가들과 하던 토론도 줄곧 그 주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비관적 이었다.’¹⁹⁾

“집집마다 변소 안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는 인분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돼지를 그런 식으로 기르면 안 된다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무려 5년 동안 툼툼이 성당을 지어가며 건의를 했지만 모두들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지를 길러왔는데 외국 사람이 왜 참견하느냐며, 신부가 아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했지요.”²⁰⁾

18)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http://www.design.co.kr>.

19) 양영철(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20) 양영철(2013)

맥그린치 신부는 주위의 무관심과 조소에도 지역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가난을 몰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실천 활동 즉 본보기를 통해 실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민승(2002)은 학습에 대한 지원의 예로 환경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기보다는 ‘지역 환경도우미’들의 활동을 보면서 혹은 소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정민승, 2002)고 하였다. 이는 본보기 즉 실천 활동을 통해 학습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처럼 의식개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중산간의 땅을 에이커당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샀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게 당시 제주인들의 생각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그 땅이 쓸모가 있다는 것을 농부들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농부들도 자신의 땅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봤다.’ 21)

‘그 악조건²²⁾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주민들과 토론에 나섰다 한 겨울 밤 자신의 숙소에서 난롯불을 켜고 밤샘 토론과 설득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신부님, 안 됩니다”가 돌아오는 답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증거를 만들겠다고 작심한다. 성공모델을 제시할 생각이었다.’ 23)

이외에도 가난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문제로서 사채와 계의 문제, 일자리 문제, 자립의 문제, 청소년 일탈문제, 의료문제, 소외받는 노인문제, 유아문제 등 인간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에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현실문제 해

21) 양영철(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22) 1957년 제주도에 4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 제주도 농촌의 60%인 3만가구 15만 명이 곡식이 전혀 없는 절양농가가 되었다. 한라산 갈대의 열매가 구황식물로 대체 될 정도였다(양영철(2014. 01. 2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들의 역사를 쓰다).

23) 양영철(2014. 01. 2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들의 역사를 쓰다.

결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드러난다.

우선 사채와 계의 사회문제로서 한림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이전 1960년대 초 제주 한림지역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은 한 달에 5~6%를 내야하는 사채를 얻어 쓰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돈을 되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권은진, 2014). 또한 사람들은 저축의 한 수단으로 매달 돈을 내고 정해진 순서가 되면 목돈을 타는 일종의 적금 같은 ‘계’를 이용하였는데 ‘계’를 조직한 사람이 망하면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현실문제 해결로서 한림신용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당시 한림의 처녀들은 직업이 없어 부산 등에 가서 공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를 맞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예로 부산으로 일하러 갔던 순임이라는 마을 처녀가 한 달 만에 물탱크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맥그린치 신부는 여성들에게 면양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였고, 수직강습소를 만들어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시돌 목장은 4H 회원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어야겠다는 맥그린치 신부의 생각과 실천 속에서 시작되었다.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가축은행사업²⁴⁾이었다(양영철, 2013:42). 가축은행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무지²⁵⁾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돼지 키우는 일을 계속 이어갔고, 성당 마당에서 돼지를 키워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²⁶⁾ 결국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4H 회원들과 제주 중산간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목장을 조성하였다.

24) 가축은행의 방식은 돼지와 닭을 무상으로 나눠주며 나중에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두 마리, 닭이 달걀을 낳으면 열 개를 다시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25) 기르던 돼지가 성장하자 부모님들이 빛을 갠기 위해 의논도 없이 몰래 내다 팔아버렸고, 제사에 쓴다고 돼지를 잡아버리거나, 돼지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돼지를 기르는 예전 방식대로 키우다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양영철, 2013:44)

26) 한림성당 마당에 키우는 돼지가 늘어나자 냄새가 심했고, 신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불만에 장소를 옮겨야 했다(양영철(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6): 한국 축산발전의 씨앗이 된 돼지 한 마리).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4월 한림에 부임하자마자 의사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지역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 한 첩, 주사 한 대로 살아날 사람들이 어이없이 저승길로 떠나거나 불구의 몸이 되는 현실을 보며 땅을 치도록 가슴이 아팠다.²⁷⁾ 당시 제주를 통틀어 병원도 몇 곳이 안 되었고, 의료보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시절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은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활동을 펼쳤으며,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2007년부터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항암요법으로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죽어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성 이시돌 의원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

한국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육지로 떠나게 되었고, 이에 제주도에도 노인문제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병이 들어도 보살피 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거나,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 신자들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박재형, 2006:151 참조). 이에 양로원과 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쫓기거나 전자오락, 패싸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가출하여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주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센터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지금의 젊음의 집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부모가 밭이나 바다에 일을 다니다보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비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맡아줄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며 농촌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알맞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27) 양영철(2014. 11. 0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2): 성 이시돌 의원의 탄생...환자가 물려들다.

이 외에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육체적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오히려 물질만능주의 등 정신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하고는 은총의 동산, 피정의 집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는 어렵고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즉 그의 제주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천 활동보다는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내용

맥그린치 신부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범적 삶을 살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 안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교육내용과 교육적 의미를 갖는 내용들을 분석해내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다양한 내용을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회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만들어진 자생조직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조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은 주민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당면과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조직은 주민의 공통된 욕구해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남

선, 2002)

예로부터 전통적 지역사회에서는 향약, 두레, 계와 같은 각종 조직들이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를 보다 발전시키려는 주민의 집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일으켜야 하는 민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로서 지역사회개발의 실천주체이며, 지역사회주민간의 공동운명체를 조성하여 문제의 공동해결에 관심을 일으키며, 지역사회조직의 구성원은 모두가 평등하며 그들의 참여는 피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과 민주성을 동반하고 있다(김남선, 2002 참조). 다시 말해 지역사회조직은 자발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과정에는 맥그린치 신부의 적극적인 참여 즉 실천 활동이 있었다. 또한 그는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조직인 4H클럽, 협동조합, 이시돌협회를 통해 더욱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체계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하며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H클럽²⁸⁾

1957년 3월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한림성당에 나오는 25명의 학생들을 설득하여 4H클럽을 조직²⁹⁾하였다.

28) 4H는 2차 세계대전 말에 앤더슨 대령(Colonel Charles A. Anderson)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당시에 대령은 경기 지역의 군사령관이였다. 이 운동은 놀랄 정도로 매우 유행했다. 미국에 있는 농부들은 소, 돼지(hogs), 닭, 토끼를 선박 화물(boatload)로 한국에 실어왔다. 그러나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 한국 전쟁 종식 이후에 4H는 정부차원에서 재조직되었다. 4H클럽은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농사방법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임(societies)이다. 그들의 배지는 4개의 클로버 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H에 각 잎은 머리(head), 가슴(heart), 손(th hands), 건강(health)을 상징한다. 임피제 신부가 이 운동을 그의 본당에 도입한 것은 1958년 2월이다(최진일, 2003 재인용).

29) 맥그린치는 어느 날 아침 한림에서 그 당시의 차림새가 아닌 미국인을 만났다. 그와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는 퇴역한 육군 대령 찰스 앤더슨(Charles Anderson)이었다. 4H 클럽을 시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2차 대전 후에 한국에 근무하면서 한국의 농사짓는 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4-H클럽을 한국 젊은이들에게 보급한 사람이었다. 그는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산간의 황무지를 개간하면 훌륭한 목장으로 만들어 축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사람들에게 중산간 지대에 목장을 만들어 소와 양을 기르자고 제안했지만 사람들은 가을에 풀이 자라지 않아 먹일 것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그는 어른들은 생각이 굳어 있어 바꾸기가 어려워 젊은이들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당시 4H회원들은 초등생과 중학교 진학도 못한 청소년들이 수두룩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원 4H클럽을 찾아 교재를 빌려 오고,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며, 관련 책들도 얻어왔다. 이 교재를 갖고 4H 회원들과 밤새 공부를 하였다.³⁰⁾ 이러한 교육활동에 이은 실습으로 가축은행을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시돌 목장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초창기 이시돌 목장을 개발할 때 4H클럽 회원들은 일제가 버리고 간 어스름한 일본군 막사에서 야영하면서 힘든 노동을 하며 목장을 개간하고 돼지를 키웠다.³¹⁾ 또한 양을 기르며 직조강습소에서 양털을 짜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목초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4H회원들은 새로운 방식의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경조사 개선 운동, 음식개선 운동, 마을 안길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4H활동

경기도에서 군정 책임자를 지냈다. 그 당시에 한국의 협동조합 농부들에게 상당량의 미국의 우수한 품종의 소, 돼지, 닭, 토끼 등을 분양해 주었다. 그런데 1950년 터진 6.25 전쟁이 그가 추진하던 4-H 보급을 막았다. 휴전 후 4-H 운동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전역 후 세계 4-H 클럽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가 한미재단의 요청으로 다시 한국에 온 것이었다. 대령은 좋은 품종의 소, 돼지, 염소, 양 등을 가져오기 위해 일본과 미국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대령은 한국 전체에 4-H 클럽이 조직되었으나 지방의 헌신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앤더슨 대령은 헌신적인 지도자의 부족으로 제주도의 4-H클럽도 질이 저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맥그린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림에서 4-H가 필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4-H운동에 헌신적인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앤더슨 대령에게 필요한 자료와 책을 부탁했고, 곧바로 대령이 준 자료들을 닦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게다가 서울 근교의 활성화된 몇몇 클럽도 찾아갔다. 1958년 2월 그는 한림에서 4-H클럽 운동을 시작하면서 4-H클럽 회원들에게 좋은 품종의 가축과 농작물 씨앗을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씨앗과 가축들을 기간 내에 발육시키기 위해 경기도에서 사온 우수품종 돼지인 요오크셔 종자로 일을 벌였다. 그게 한림의 청소년들을 4-H클럽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한 사연이다(양영철(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30) 양영철(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돌의 역사를 쓰다.

31) 양영철(2013. 12. 09).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5): 제주개발에 자발적 협동의 불씨를 지피다.

에 대한 당시 4H회원의 회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림 4H는 공부도 많이 시켰다. 하지만 맥그린치는 ‘오락부장’이기도 했다. 어느 날은 맥그린치 신부가 아일랜드에 다녀오더니 배드민턴을 가져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듣도 보도 못한 게임이었다. 우리는 배드민턴을 ‘닭털 놀이’라고 불렀다. 맥그린치 신부는 심지어 우리에게 카드도 가르쳐 주었다. 카드가 무엇인지 몰랐던 시절에 머리 좋게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웠던 기억도 난다. 우리 4H는 전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매우 우수한 단체로 소문이 나 있었다. 1958년에 제4차 4H경진대회가 한림중학교에서 열렸다.

우리 4H 회원인 진영만 회원이 최고 지도자 상을 받았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4H 운동 확산에 공이 큰 앤더슨 예비역 대령이 경진대회에 참석한 기억이 난다. 1959년에 개최된 제5회 경진대회는 맥그린치 신부가 지도자 상을 수상했다. 우리 4H는 이후에 계속 우수 단체가 되어서 1960년에는 5명이 우수회원으로 뽑혀 전국 경진대회에도 참석하였다. 나는 응변을 잘해서 그 부분을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그 대회는 윤보선 대통령도 참석할 정도로 국가 중요 행사 중 하나였다. 1961년에는 장면 총리가 제주도에 초도순시 왔다가 다른 곳도 아닌 한림성당을 들렀다. 한림 4H 활동에 보인 관심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아이디어는 4H 운동에서 나왔고, 사실 금약개척단도 4H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사업이다.’³²⁾

4H의 주요활동은 회의생활, 과제활동, 교육행사 및 훈련, 봉사활동으로 구분(이영래, 2003)하고 있으며 위의 인터뷰에서도 공부, 응변, 놀이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다. 4H클럽은 맥그린치 신부가 처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사회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천적 학습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한림신용협동조합³³⁾

32) 양영철(2014. 09. 1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1): 호스피스 병동 살리는 게 저를 기념하시는 일.

33) 현학순 제주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메리가별 수녀가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권유했고, 맥그린치 신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용협동조합의 씨를 뿌렸고, 그리고 김정민 회장은 이를 잘 가꾸어 단 기간에 전국 최고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 신용협동조합을 뿌리내리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김정민 회장은 이화여대 사범대학을 나와 한림공고에서 교사를 하던 보기 드문 엘리트였다. 김정민 선생은 이때부터 신협 일에 혼신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교사생활에, 저녁에는 중앙에 공문 보내는 일에서부터, 재무보고서 작성 등 갖은일은 모두 도맡아서 했다. 나중에 장학사 직도 그만 두고 신협 일에 혼신을 다하였다. 김정민 회장은 한림신협이 출발할 때부터 회계이사로 선출되어 이후 이사장을 거쳐 10년간 신용협동조합제주도연합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제주도 신용협동조합의 토대를 만들었다(양영철(2015. 01. 27).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6): 만인은 1인을, 1인은 만인을 위하여).

1960년대 초 제주 한림지역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은 한 달에 5~6%를 내야하는 사채를 얻어 쓰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돈을 되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권은진, 2014). 또한 사람들은 저축의 한 수단으로 매달 돈을 내고 정해진 순서가 되면 목돈을 타는 일종의 적금 같은 계를 이용하여 돈을 모았다. 이러한 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 글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계를 조직한 사람이 망하면 껏돈을 부었던 사람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뻘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성당의 신자가 계돈을 뻘이고 한 푼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34)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또 썩 이자에 꾸어 쓸 수 있는 은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던 중 ‘협동조합 교도봉사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신협 설립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메리가별 수녀의 신용협동조합³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림성당의 신자 2명을 부산에 가서 9일간 신협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초기에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신자들에게 상부상조의 정신과 소액저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다음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였다.³⁶⁾

한림 신용협동조합이 자리를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신자들이 워낙 가난하였기 때문에 신협에 맡길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너무 적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꾸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³⁷⁾ 결국 조합원의 자격을 천주교 신자가 아닌 지역주민으로 넓힌 결과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든든한

34) 박재형(2006:89).

35)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종교나 직장, 지역 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 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조합원간 끈끈한 연대를 강점으로 자금을 조성·운영하는 비영리 금융운동이다. 1850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에 조합이 창설된 후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었다(권은진, 2014).

36)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208~209 참조).

37) 이러한 어려움에도 맥그린치는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신자들을 필리핀까지 보내어 신용협동조합 교육을 받아오도록 하였다(양창조, 2011).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조합원의 수와 자산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융자해 줄 수 있게 되었다(양창조, 2011). 한림신협이 성공하자 1년 후 두 번째 신협인 ‘제주 천주교 신용협동조합’(현 제주중앙신협)에 이어 한림중고교 신협, 한경평화 신협, 서귀포 신협 등으로 신협 붐이 일었다.³⁸⁾ 이후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신협을 지역에 환원하였으며, 비록 지금은 경영난으로 한림신협이 사라졌지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하다.

3)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1962년 10월 맥그린치 신부는 농촌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 이시돌’을 주부로 하는 비영리재단인 ‘성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³⁹⁾하였다(권은진, 2014). 이시돌협회⁴⁰⁾는 개척농가 조성사업, 사료공장 가동, 새로운 축산 기술의 보급 등에 노력하였고, 1970년에는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사업으로 양로원과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였으며, 유치원 및 사회교육 연수원도 운영하고 있다.⁴¹⁾

이시돌협회의 설립은 외국정부와 원조단체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호활동과 지역사회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농·축산분야의 개량 발전 도모와 농축산물의 증산장려, 사회사업과 육영사업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권은진, 2014 참조).

이러한 사례로 PL-480⁴²⁾을 들 수 있다. 이시돌협회는 PL-480을 통해 1963년 3월부터 1970년까지 미국정부로부터 많은 양의 옥수수를 지원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양영철, 2013). PL-480은 과잉 생산되어 쓰다가 남은 농산물에 불과했

38) 양영철(2015. 01. 27).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6): 만인은 1인을, 1인은 만인을 위하여.

39) 1957년에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시작된 4H클럽과 가축 은행, 1959년에 설립한 직조 강습소, 1961년에 조성한 한림 목장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62년 10월 15일에 설립하여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15 참조).

40) ‘성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이하 ‘이시돌협회’라 칭함.

41)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15).

42) PL-480은 미국이 농업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자 이를 식량이 절대 부족한 후진국 원조에 활용한 프로젝트이자 관계법이다. 과잉생산으로 폭락한 자국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후진국의 기아를 탈출하게 해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1956년부터 1978년까지 PL 480에 의하여 원조를 받았다. 미국 곡물 원조를 받은 한국 정부는 이 곡물을 국민들에게 팔아서 식량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 판 돈을 대충자금이라 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이 자금을 쓰도록 했다(양영철(2014. 02. 11).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0): 꿈이 모여 십시일반의 기적이 이뤄지다).

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개발의 소중한 씨앗으로 삼았고, 그것을 소중히 키워내어 지역의 가난을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1969년에는 제주도 축정당국과 제휴하여 개척단지를 조성하였고, 이에 130개 농가에 기술 및 용자지원에 나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1973년에는 양돈 협업 농가를 일귀내 200가구에 기술·시설·사료지원과 종돈분양을 할 수 있었다.⁴³⁾

현재까지도 이시돌 목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시돌협회인데 협회는 크게 두 부서로 나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시돌 목장으로 주로 가축을 키워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시돌 사료공장으로 곡물을 수입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이시돌 목장에 공급하기도 하고, 일반 축산농가에 판매하기도 한다.⁴⁴⁾ 이시돌협회가 축산과 사료공장 운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이시돌협회 산하기관의 비영리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환자들을 위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요양원도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젊음의 집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이시돌협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시돌협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출발 당시부터 철저히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며(양영철, 2013:33),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만이 아닌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듬으며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의 확충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도 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지역사회개발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9월2일 대통령령으로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대통령령 제1384호에 따라 공포된 지역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

43)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17~618 참조).

44) 오마이뉴스(2007. 8. 17.). “축산으로 선교와 사회복지 일구는 이시돌 목장”, 장태욱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8873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요소는 지역의 욕구 및 문제해결 즉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자립 등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태도 및 행위변화를 위한 능력개발을 들 수 있다.

김남선(2002)은 학자에 따라 또는 기관 및 국가에 따라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반적 과제이며,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욕구창출 과정이 요구되며, 지역사회문제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회교육적 입장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사회개발은 단순한 주민의 태도변화와 물적변화가 아니라 민중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민중운동은 개별적 형태가 아니고 집단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의 통합된 활동을 근거로 하며, 주민통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은 밖으로부터의 수동적 지원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의 통합된 힘에 의한 능동적인 외부자원의 획득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은 의식화를 통한 주민의 태도변화로부터 시작된다(김남선, 2002 참조).

L. Nelson(1960)등은 지역사회개발은 원래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활동을 주민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며(허훈·김중수, 2008 재인용)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개발은 일정한 지역의 집단적인 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 과정에 관련된 주체는 그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김남선, 2013).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김남선(2013)은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기본적 특성을 교육적과정, 조직화과정, 종합적과정, 실천과정, 후진지역사회의 개발과 같이 다섯 가지로 이야기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실천 활동을 통해 실정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웠으며 무엇보다 내부자원의 활용과 외부자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림수직

당시 한림의 처녀들은 직업이 없어 부산 등에 가서 공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를 맞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예로 부산으로 일하러 갔던 순임이라는 마을 처녀가 한 달 만에 물탱크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맥그린치 신부는 여성들에게 면양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고향 가족들로부터 지원⁴⁵⁾을 받아 35마리의 양을 사들였으며, 성당 뒤뜰에 우리를 만들어 4H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양을 키웠다. 처음에는 제주에서 양을 키울 수 없다고 주민들이 반대했다. 똑똑한 일본사람들도 실패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반대가 거셌다.

하지만 어느덧 면양에서 수북한 털을 생산해 내었고, 4H클럽의 여성회원들은 양털에서 실을 뽑아 양말을 짜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을 뽑고 옷을 만들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맥그린치 신부 또한 고향에서 보기만 했었지 실제로 해본적은 없었다. 이에 몇 명의 4H클럽 여성을 설득하여 밤새도록 같이 공부하고 토론했⁴⁶⁾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였다.⁴⁷⁾

45) 맥그린치는 고향 북아일랜드에서 면양 방목현장을 지켜보며 자랐다. 이불 뿐만 아니라 옷·담요 등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 덕에 면양으로 그는 눈을 돌렸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봉급은 그저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준. 처음으로 고향의 가족·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면양을 살 돈과 어머니가 쓰던 물레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식구들은 곧바로 화답했다. 그 돈으로 성산포 할아버지의 면양 35마리를 샀다. (양영철(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46) 양영철(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47) 아가다란 세례명을 가진 젊은 여신도를 그 무렵 제주시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냈고, 교육을 받고 되돌아온 아가다는 다시 15명의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이후 다시 두 명의 여성신도를 서울의 방직학교로 보냈으며, 되돌아온 이후 강양(골롬바)과 김양(필로메나)을 가르쳤다. 또한, 안토니 포드(Anthony Ford)로 하여금 방직베를 만들게 하였으며, 그가 설계한 모델을 토대로 목수들이 다시 3~4개를 만들도록 했다(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그는 독일의 ‘미제레오르’⁴⁸⁾로부터 원조⁴⁹⁾를 받아 일본에서 양 500마리를 들여와 목장에서 기르면서 양털을 생산했다. 양털이 늘어나자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에서 수직 전문 수녀⁵⁰⁾를 초청하였다. 수녀들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모직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왔다.

교육은 품질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한림수직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엄격한 교육에다 새 기계가 들어오고, 옷만이 아니라 양말·장갑·담요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한림수직은 그 명성을 전국으로 넓혀갔다. 물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⁵¹⁾ 이후 한림읍 대림리에 있던 직조강습소를 한림수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70~80년대 전성기 때는 2,800마리의 양에서 양털을 생산하면서 약 1,300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⁵²⁾

48) 독일의 미제레오르(Misereor)는 독일의 주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을 돕기 위해 1958년에 설립한 독일 주교회의 산하의 국제개발원조기구로서 독일 아헨(Aachen)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일시적 이웃돕기 운동의 성격이었으나 1967년 이후 지속적인 개발원조기구로 발전하였다. 미제레오르는 활동의 목적을 복음과 그리스도교 사회론에 기초한 개발원조를 통한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두고 있는데, 대부분 10만 마르크 미만의 금액으로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나환자요양원, 병원, 약국, 빈민구호식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선사업 기관의 설립,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자립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자립은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 직업교육, 여성교육, 문맹 퇴치 등에도 주력한다. 미제레오르의 원조기금은 독일 가톨릭 신자들의 사순절 특별헌금과 독일 교회 재정의 개발원조 지원금, 그리고 독일 정부와 유럽공동체의 개발원조금 등이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17).

49) 당시 교구장인 헨리 주교는 맥그린치를 도움 방법을 찾다 독일주교회에 원조를 요청했다. 원조 요청을 받은 독일주교회 해외원조단체의 자금 책임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사람을 보냈으며, 그가 한림에서 보고 들은 뒤 보낸 보고서는 훌륭했다. 맥그린치와 주민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주교회의는 곧바로 지원을 결정하고 자금을 보내 수직사업 성공의 자양분을 제공했다(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미제레오르의 원조규모는 1959년 11월 4일, 축산과 농산물중자은행 건립 비용 7,500(마르크). 또한 양(羊) 구입비와 양모직조 공장 건립비 75,930(마르크), 1960년 11월 26일 양모가공 공장, 양돈 수입, 퇴비 생산 시설 지원금 23,170(마르크), 이 중 10,000마르크는 대부. 12월 7일 일본으로부터 양 구입비 1차 22,750, 2차 191,000지원. 이 중 91,000 마르크는 대부. 1961년 3월 21일 한림에 농업훈련센터 건립 지원금 120,000. 또한 양모가공공장 지원금 1차 186,800, 2차 66,500. 이 중 140,000 마르크는 대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18-19).

50) 1962년 제주에 처음 온 세명의 수녀들은 메리 에디나 켄리(Mary Ethna Kenry)와 메리 리콜리 타프(Mary Ligouri Taffe), 그리고 로사리아(Rosarii Mctigue)였다. 그 다음에 데크리안과 이멜다가 왔다. 수녀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방직공장과 수예학교에서 아일랜드 트위드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색의 배합과 섬세한 패턴들을 짜는 방법을 배우고 왔다(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51) 양영철(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52) 한림수직에는 직원이 두 형태다. 실제로 물레로 제품을 만드는 여성들은 정규직원이다. 한창일 때 40명을 넘었다. 또 다른 직원은 일종의 재택근무자다. 양털에서 뽑은 실을 집에 가지고가서

를 제공했다(양영철, 2013:40). 약 40년 동안 가동되던 한림수직은 제주의 양모 산업을 이끌었으나, 1990년대 화학섬유가 혼용된 스웨터가 대량 생산되면서 사양 길에 접어들었고 결국 2004년까지 운영되다 결국 문을 닫았다.⁵³⁾

2) 이시돌 목장

이시돌 목장은 1961년 ‘한림목장’(현 성 이시돌 중앙실습목장)으로 처음 개설하였으며 ‘이시돌’이라는 이름은 ‘농민의 주보성인’인 ‘성 이시돌’⁵⁴⁾에서 따와 지은 이름이다. 이시돌 목장은 4H 회원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어야겠다는 생각과 실천 속에서 시작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미래의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가축은행 사업이었다(양영철, 2013:42).

맥그린치 신부는 경기지구 사령관인 미군 대령 앤더슨을 만나 새끼를 밴 요크셔 품종의 서양돼지 한 마리를 구해왔으나 기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그는 경기도 수원 등 다른 지역의 4H클럽이나 축산기술원을 찾아가 양돈과 양계,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고 교재를 얻어다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였으며 돼지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⁵⁵⁾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은행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무지⁵⁶⁾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돼지 키우는 일을 계속 이어갔

디자인 한 대로 짜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무려 1300명에 이를 정도였다. 늘 500명은 있었다. 한림이나 한경면에서 사는 주민에 국한하지 않고 진도 각 지역 여성들을 썼다 (양영철(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53) 제주일보(2005. 1. 29.). 김현중 기자 “오늘 광양성당서 한림수직 양모제품 세일판매” 참조.

54) 성 이시돌은 에스파냐 마드리드 근교에서 태어나 후안 데 베르가스의 영지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도 가난하였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이시돌은 회랍어로 선물이란 뜻으로,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성인이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 국립 농촌 생활 위원회의 수호자이다(권은진, 2014).

55) 처음 가지고 온 돼지가 10마리 새끼를 낳았고, 4H회원들에게 암컷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면서 새끼를 낳으면 암컷 두 마리를 가져 오는 계약을 맺었다. 키우는 방법도 기존 제주 스타일을 버리고 사료도 바꾸었다. 인분은 절대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정 궁하면 보릿겨라도 먹이도록 했다. 또한 한림부두에서 어부들이 어획감 손질을 하며 남은 생선의 내장, 머리 등을 얻어와 보릿겨와 섞어 돼지에게 사료로 주도록 했으며, 클로버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는 것을 귀동냥으로 듣고는 지천에 널려있는 클로버도 사료로 사용하였다. (양영철(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6): 한국 축산발전의 씨앗이 된 돼지 한 마리).

56) 기르던 돼지가 성장하자 부모님들이 빛을 갖기 위해 의논도 없이 몰래 내다 팔아버렸고, 제사에 쓴다고 돼지를 잡아버리거나, 돼지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돼지를 기르는 예전 방식대로 키우다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양영철, 2013: 44)

고, 성당 마당에서 돼지를 키워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⁵⁷⁾ 결국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한림읍 정물 부근의 3000평 부지를 사들였다(양영철, 2013:44).⁵⁸⁾ 차가 흔치 않던 시절이어서 멀리 떨어진 이시돌 목장까지 다니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4H회원들은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고 돼지를 키워내었다.

앞으로의 각종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시돌 목장은 1961년 11월 금악리 109번지 일대에 새 부지를 매입한 뒤 ‘한림목장’을 개설하고, 일본으로부터 면양을 들여와 사육하기 시작하였으며, 목장 안에 ‘농업 훈련 센터’⁵⁹⁾를 설립하였다.⁶⁰⁾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분야 교육기관으로 양돈뿐만 아니라 목축, 트랙터 등 중장비 반을 만들어서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을 받은 도민들에게 다시 돼지 20마리를 분양해 줬고, 지역 양돈 산업 중흥의 길을 열게 되었다.⁶¹⁾ 이시돌 목장은 1960~70년대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⁶²⁾을 하였으며, 이에 하루 돼지 120두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고기 가공공장⁶³⁾을 일본

57) 한림성당 마당에 키우는 돼지가 늘어나자 냄새가 심했고, 신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불만에 장소를 옮겨야 했다(양영철(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6): 한국 축산발전의 씨앗이 된 돼지 한 마리).

58) 당시 맥그린치 신부의 월급은 미화 70달러. 생활하기도 벅찬 돈이었다. 할 수 없이 고향친구와 친척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면서 손을 내밀었다. 1달러에서 10달러의 돈을 친구들은 맥그린치에게 부쳤다. 그 때의 돈으로 평당 0.5원씩 고작 1500원이 들었다. 도로도 없고, 가시덤불만 있는 땅이지만 그 때 시세로 치면 큰 돈을 주고 산 것이다(양영철(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6): 한국 축산발전의 씨앗이 된 돼지 한 마리).

59) ‘농업훈련센터’는 1970년에 중앙연수원을 건립한 이후 ‘농업기술연수원’으로 개칭하였다. ‘농업기술연수원’에는 건평 420평에 기숙사·도서관·식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숙박비·수업료·교재 등 일체 경비를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연수생들에게 양돈·면양·비육우 등의 사육방법, 목야지 조성법, 목초 건조법, 사일리지 처리법과 가공법, 트랙터 운전과 정비법 등 농업 전문 지식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였다(오마이뉴스(2007. 8. 17). “축산으로 선교와 사회복지 일구는 ‘이시돌 목장’”). 농업기술연수원은 1980년까지 운영되었고, 이후 성 이시돌 사회교육연수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60) <가톨릭시보> 291호, 1961년 8월 20일(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 천주교 제주교구. 2001:207 재인용).

61) 양영철(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들다.

62) 196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이시돌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1만3000마리로 불어났다. 국내 최대의 양돈 목장이 된 것이다. 그 시절엔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인 삼양산업이 대관령에 돼지와 소를 키우는 대형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그 기업도 종돈 분양과 목장 개척에 대한 자문을 이시돌 측에 해 올 정도였다. 삼성그룹도 이병철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에버랜드 자리인 용인에 대형 목장을 운영했는데 역시 이시돌의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시돌 목장은 1960-70년대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였다(양영철(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들다).

63) 돼지 숫자가 늘어나자 이를 소비하기 위한 다양화를 꾀했다. 심지어 홍콩과 일본으로까지 돼지를 수출할 정도였다. 선진국인 두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과 합작으로 설립하여 1972~77년까지 일본에 고기를 수출했으나 일본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내시장을 개척했다.

1979년 하반기에 이르러 돼지 값이 폭락하는 돼지 파동을 겪고 나서 맥그린치 신부는 돼지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⁶⁴⁾ 1980년 양돈 사업부를 해체하고, 당시 이시돌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7천여마리와 양돈 시설들을 양돈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아주 싼값으로 나누어준 후⁶⁵⁾ 양돈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에는 넓은 초원에서 소를 기르는 것이 축산업을 일으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소를 중점적으로 기르기 시작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젓소와 고기소, 면양 등 좋은 품종의 가축을 들여와 제주도 사람들을 위한 목장을 넓히고 우유를 가공하여 ‘이시돌 우유’라는 상표로 팔기 시작했으며, 1988년에는 이시돌 치즈 공장을 만들게 되었다. 이시돌의 치즈와 우유는 금세 유명해져 목장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렇게 공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을 때 제주 낙농협회에서 우유 공장을 지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련 없이 이시돌 우유 공장을 낙농협회에 넘긴다(양영철, 2013:50). 우유공장을 계속해서 운영했으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출혈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과감히 우유공장을 포기한 것이다.

이시돌 목장은 2003년을 시작으로 마필육성 및 순치⁶⁶⁾ 조교를 중점으로 마필

그 시절 제주에는 도축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부산에 생돈(살아있는 돼지)을 배로 싣고 가 도축하고, 급냉동으로 홍콩·일본으로 팔아넘겼다. 그러다가 돈이 많이 들자 맥그린치 신부는 일본의 최대 수출회사인 비츠비시와 손잡고 한림읍 용포에 아예 도축장을 만들었다(양영철(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들다).

64) 5·16 군사쿠데타가 터졌다. 군인들은 경제를 잘 몰랐다. 갑자기 돼지 값이 올라가자 이시돌 목장에 다그쳤다.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팔라”는 명령이었다. 수출은 계속하고 돼지를 더 키워서 국내에 팔면 되는데, 수출하는 돼지를 국내에 돌리라는 이어없는 처사였다.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수출을 포기했다. 돼지 값이 오르자 너도 나도 양돈업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양돈업에 손을 댔다. 이게 화근이었다. 이젠 너무 많은 돼지가 시장에 나와 돼지값이 곤두박질쳤다. 그 시절 소위 ‘돼지 파동’이다. 그러자 정부가 내놓은 대치는 전업 돼지사육농부부터 생산을 중단하라는 소리였다. 결국 맥그린치는 다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고자 기업형 양돈을 접고 다시 일반 가정으로 분양을 결정했다(양영철(2014. 08. 25).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0): 돼지 파는 것도 정권의 말을 들어야 했다).

65) 신부삼 대표(맥그린치 신부가 한림공사로 오면서 처음으로 신자로 입교하였고, 곧바로 4H회원으로 활동, 이후 4H 연합회장)는 약 200마리 돼지를 분양받았다. 500마리까지 받은 직원도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처음에는 무료로 분양 해 주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이 오히려 만류를 했고, 아주 싼 값으로 넘겼다. 게다가 사료마저 외상을 대줬다. 돈 한 푼 없이 양돈사업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작정이었다(양영철(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들다).

66) 순치는 말을 순하게 길들이는 것으로, 경주마의 경우 본격적인 조교를 하기 이전단계에서 실시

판매 산업 및 마주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마사시설이 증축됨에 따라 경마장 입사 전 기본 순차 및 런칭 훈련을 하고 있으며, 마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필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시돌 목장은 낙농사업, 비육사업, 경주마사업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150만 평 부지의 이시돌 목장에서는 40명의 직원이 경주마 100여두, 비육 소 200여두, 젖소 700여두를 키우고 있으며, 낙농과 초지 부문에서 국내외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비육 부문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는 등 청정 제주의 친환경 목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와 이시돌이 일궈낸 성과로 제주는 전국 최고의 양돈 산업 전진기지가 됐고, 현재 한림의 양돈 사업자는 140가구에 이르는데다 키우는 돼지는 13만 마리나 된다.⁶⁷⁾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중산간 넓은 초원을 이용한 초지 개량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제주에서는 소를 집에서 키우다가 여름 장마 때만 산에서 방목을 하곤 했다. 유럽처럼 계속 방목을 하면 좋은 육질이 있는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지만 마을의 농민들은 겨울에 풀이 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했다(양영철, 2013). 물론 주민들의 판단은 경험의 소산이기도 했다. 이미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일본인들이 갖은 수를 동원, 목초 개발과 초지조성에 나섰지만 매년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다.⁶⁸⁾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서 초지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량목초에 대한 지식과 초지를 조성하는 기술이 부족해 초보적인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양영철, 2013). 맥그린치 신부는 어떻게 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잘 자라는 좋은 목초를 길러, 소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세계적인 목초개발전문가인 조지 홈즈(George Holmes)가 3개월간 한림에 머물게 되면서 4H클럽 회원들과 실험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림 해안가부터 중산간 지대를 향해 50m 간격으로 4~5평의 실험지에다가 목초 씨를 뿌리고 생육상태를 비교해 갔고 그 중에서 제주 중산간에 적합한 목초 품종을 찾게 되었다.⁶⁹⁾

하는 예비조교단체를 순차라고 부르기도 한다(위키백과).

67) 양영철(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든다.

68) 양영철(2013. 11. 25).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4): 양모·젖소·돼지 그리고 실험... 마이더스의 손이 되다.

69) 맥그린치는 1968년이라고 기억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가서 보니 겨울인

3) 개척단지 및 양돈 협업 농가 조성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을 확장하면서 고용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목축업을 직접 하도록 하면 소득이 크게 늘 것이라고 봤다. 주민들이 직접 목장을 경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⁷⁰⁾ 이에 그는 지역주민들을 ‘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에서 초지조성 및 축산에 대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제주도 중산간 약 1,000ha⁷¹⁾를 매입 개간하여 98세대의 ‘개척농가’를 입주⁷²⁾시켰다. 또한 ‘개척 농가’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합 사료 공장’⁷³⁾을 설립하여 가동시키면서 사료

데도 불구하고 소들이 산꼭대기까지 가서 목초를 뜯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행기로 목초 씨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영양분이 있는 식량을 면양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당장 목초를 3년 안에 개발하라고 임명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도 없는 마당에 성공은 부지하세월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사정을 말할 관료도 없었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막막했다. 전국을 다 뒤집고 다녀도 목초를 연구한 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 하나 없었다. 장관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대통령이 보고 왔던 뉴질랜드에 목초 전문가를 물색, 3개월 간 초청하였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목초개발전문가인 조지 홈즈(Gorge Holmes) 선생이었다. 그러나 막상 초청은 해놓고 무얼 어떻게 배워야 할 지 또 허둥댔다. 그러다 농림부가 찾아낸 방안이 그를 제주의 맥그린치 신부에게 보내란 아이디어였다. 아마도 제주에서 양돈과 목장을 운영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혹이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맥그린치는 그를 만나고서야 그가 세계적인 전문가란 걸 알았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을 받고 자문해 주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일랜드 정부도 자문관으로 채용하고자 공을 들이던 사람이었다. 그가 한림에 당도하면서 맥그린치에겐 행운이 찾아왔다.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대줬으니 맥그린치로선 공짜로 세계적인 전문가를 3개월간 활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비록 이시돌 목장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맥그린치는 또 그 홈즈선생의 성실에 탄복했다. 그는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토양·기후를 이미 알아왔고, 거기에 맞는 목초 씨앗을 갖고 왔다(양영철2014. 03. 1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1): PL480...또 다른 십시일반의 기적).

이미 만들어 둔 4H클럽 한림 청년들이 그의 수족이 돼 주었다. 뉴질랜드에서 모셔 온 목초전문가는 이제 실험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림 해안가부터 중산간 지대를 향해 50m 간격으로 목초 씨를 뿌리고 생육상태를 비교해 나갔다. 각기 다른 종자를 뿌려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것이다”고 하나를 찾아냈다. 이시돌 목장 조성의 기틀이 된, 가장 적합한 품종의 목초가 이시돌 목장에 안착하게 된 사연이다. 겨울에도 소에게 여물을 먹일 수 있는 목초가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의 한 목장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양영철(2013. 11. 25).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4): 양모·젖소·돼지 그리고 신협... 마이다스의 손이 되다).

70) 양영철(2015. 01. 19).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5): 이시돌, 협동조합형 지역개발의 시대를 열다.

71) 약 300만평

72) 땅 구입비는 30년 상환 조건을 걸었고, 돼지와 사료도 외상으로 헐값에 분양해 주었다. 처음에는 18가구로 시작하였다. 말이 3만평이지 특별한 농기구가 없었던 때이고, 일할 식구는 얼마 없었던 때인지라 3만평은 너무나 광활했다. 당시 이 지역에 살았고, 이 개척자들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홍군석 노인이나 13년 동안 금악리장을 지낸 맥그린치 기념사업회 박승준 회장은 “그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오죽해야 그들 중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겠냐고 할 정도였다. 많은 이는 중도에 포기하였다. 포기할 때는 이시돌협회에 땅을 반납하도록 계약돼 처분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결국 개척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결과 98가구로 늘었다. 이렇게 제주도내 목장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나갔다(양영철(2015. 01. 19).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5): 이시돌, 협동조합형 지역개발의 시대를 열다).

를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⁷⁴⁾

그 시절 맥그린치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인 PL-480 제2관에 의하여 사료용 옥수수 도입 승인을 얻었다. 개척사업을 위해 기증받은 옥수수로 배합사료를 만들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주민들에게 토지나 집을 마련해주었고 자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오라동 등 7개 단지에 개척농가 주택이 지어졌고 이시돌 목장에서 초지조성과 축산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가의 선진기술은 물론 가축과 사료까지도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척사업이 정착되어 갈 무렵 개척단지와는 별도로 제주도 축정당국과 제휴하여 사업에 따른 자금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였고 이에 양잠단지 90세대, 축산단지 4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다.⁷⁵⁾ 이와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아일랜드 등지에서 축산 기술 요원을 초빙하여 제주·전라·강원도 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 기술 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였다.⁷⁶⁾

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양돈 사업에 뜻을 가진 200세대를 모집하여 ‘양돈 협업 농가’를 조성하였고 기술, 시설, 사료 지원, 종돈분양 등을 실시함으로써 양돈 사업을 활성화 시켰다.

73) 1963년 미국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되는 사료(옥수수) 도입이 승인되자, 정부와 미대외원조국(USOM)과 가톨릭 구제회 3자의 협정에 의하여 1963년부터 1967년까지 322만 불에 해당되는 사료 곡물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회원들에게는 돼지를 살찌게 하여 수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이에 8천보의 사료포를 개발하여 사료를 자급할 수 있도록 꾀하였다. 하지만 사료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고, 이에 1964년 ‘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염가로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11:218).

이렇게 이시돌 배합사료공장에서 만들어진 사료는 이시돌 목장과 개척농가에 저렴하게 제공되면서 사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했다. 2003년 말까지 제주도내에서 가동되고 있던 배합사료 제조공장은 이시돌 사료공장과 탐라사료공장뿐일 정도로 이시돌 사료공장은 제주 축산농가의 사료공급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이시돌 배합사료공장은 품질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사료공장인증(2006-49호)을 94개 사료공장 중에서 49번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획득하게 되었으며 중앙 제어실을 통한 자동화공장 시스템으로 신선한 원료를 사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양영철, 2013:56 참조).

74)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11:617-618 참조).

7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11:617 참조).

76)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11:617).

<표IV-1>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개발 요약

		한림수직	이시돌목장	개척단지
근본목적		인간존엄성 실현, 현실문제 해결로서의 사랑의 실천		
교육적과정		변화욕구 창출, 태도변화의 노력, 직업(기술)교육		
대상		농촌 지역여성	농촌 지역주민	농촌 지역주민
실천조직		4H클럽 이시돌협회	4H클럽 이시돌협회	이시돌협회 제주도
실천 과정	목적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자립지원
	활동	면양사업, 직조기술교육, 직조물판매	축산 및 장비교육, 가축은행, 사료공장, 도축공장, 이시돌우유, 이시돌치즈, 축산업(양,돼지,소,말)	자립교육 자립지원(재정, 주택, 사료, 가축 등)
외부지원		해외원조, 교육전문가	해외원조, 교육전문가	제주도, 해외원조
교육기관		직조강습소	농업기술연수원	농업기술연수원 실습: 이시돌 목장

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가 의미하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최일섭·류진석, 2003:34-35)이라 하였으며, 김남선(2002/2013)은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일정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 즉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교육의 성과는 지역사회복지의 증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인간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심을 담은 실천적 활동은 상호신뢰와 협동심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자본을 증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증진 이외에도 소득증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도

실천하지 못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복지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사회복지를 실현하였다.

이장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으로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복지 활동을 교육복지와 사회복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복지

교육복지는 교육소외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태 또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된 노력의 총체를 의미하며,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김인회, 2006).

이러한 교육소외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교육소외의 유형을 김인회(2006)는 아래와 같이 <표IV-2>로 정리하고 있다.

<표IV-2> 교육소외의 유형(김인회, 2006).

교육소외의 유형			현상
교육기회의 접근제한			교육기회에 접근하지 못함
교육 부적응	교육내용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가 맞지 않음
	교육방법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방법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환경 부적응	물리적 환경	교육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심리·문화적 환경	교육장소의 심리적, 문화적 환경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기회 공급 불충분			교육의 질적 조건은 적합하나 교육자원 부족 등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함

맥그린치 신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쳤다. 물질적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립 활동으로서의 의식개선과 농촌 환경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해있던 여성들의 직조강습소에서의 교육을 통해 전문능력을 증대하였으며, 정신적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본질적 인간성을 되찾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소년들의 탈선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 모두 일을 다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으며 이외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에서 소외받으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노인들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복지를 실천하였다.

김정원(2007)은 교육복지투자사업 과정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 교사와 학생과의 긴밀한 관계는 교사가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관계 맺기에 기초한 총체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는 교사-학생 간 긴밀한 관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결핍에 대한 교육기회의 지원보다는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서의 교육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취약집단을 교육기회, 과정, 결과 등에서 결핍된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이 지닌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집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김정원, 2007)이며, 여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자원의 양적 결핍과 부족을 강조하는 ‘빈곤’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 고립(isolation)을 강조하는 개념이다(김정원, 2007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복지는 자원의 양적 결핍을 강조하는 ‘빈곤’해결을 위한 교육활동뿐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이었다. 교육복지로서의 사회교육연수원, 노인대학 및 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사회복지

맥그린치 신부는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그는 1954년 제주에 부임한 이후 먹고살기 힘들었던 지역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지급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교회의 사목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행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으로서 의료 및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가) 성 이시돌 의원⁷⁷⁾

맥그린치 신부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현대의 의료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극빈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조성해 가는 목적으로 1970년 4월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였다. 성 이시돌 의원은 의사는 물론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던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⁷⁸⁾ 이시돌협회가 시설과 이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고 ‘성 골롬반

77) 1968년 골롬반 수녀회는 준비단을 만들어 개원준비에 들어갔고, 1970년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고 베니누스 수녀를 초대 원장 겸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1971년 파멜라 수녀가, 1976년에는 엔다 수녀가 제3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1998년 6월 개원 후 28년동안 병원을 관리 운영해 오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가 제주에서 철수함에 따라 서울 성가 소비녀회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 ‘성 이시돌 복지의원(호스피스)’으로 개칭하여 호스피스 병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양영철(2014. 11. 0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2): 성 이시돌 의원의 탄생...환자가 물려들다. 참조).

78)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4월 한림에 부임하자마자 의사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지역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 한 첩, 주사 한 대로 살아날 사람들이 어이없이 저승길로 떠나거나 불구의 몸이 되는 현실을 보며 땅을 치도록 가슴이 아팠다. 당시 제주 전역을 통틀어 의사숫자는 고작 40여명. 그것도 피난길에 제주에 몸을 잠시 의탁한 이들이 대다수였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떠나는 형편이었고 물론 제주는 의료사각지대였다. 물론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었다. 1957년 제주시에 세워진 제주도립병원이 제주도내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다. 그후 한참을 지나 1964년도에야 따로 문을 여는 전문의가 나타났고, 1969년 제주 첫 민간병원인 나사로 병원이 문을 열었다. 너무도 열악한 제주의 의료시설 환경이었다. 제주의 중심지인 제주시가 그 정도였다. 그럴진대 농촌인 한림은 더 이상 거론할 수준이 아니었다. 한림에서 환자가 생기면 제주시내 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제주시로 가는 길은 지금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보다 더 어렵고 멀었다. 물론 의료보험이라곤 꿈도 꾸지 않던 때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기에 병원은 한 마디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환자로 미어터졌다. 전도에서 물려들었다. 심지어 병원 주변 여인숙에 아예 목을 곳을 만들고 접수순번을 기다릴 정도였다. 지금의 이시돌복지의원의 장창두 과장에 따르면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 왔지만 진료를 다 못할 정도였다. 하루 130명에 육박했다고 그는 당시를 기억했다. 김성택씨는 그 이유를 두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제주도내에 병원이 드물어 병원에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료비가 쏠고, 돈이 없는 환자들은 아예 무료진료를 해줬다. 두 번째 이유론 약이 좋았다. 약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선진 신약이었고, 약 복용이 흔하지 않을 때라 항생제 ‘약발’도 잘 들었다. 물론 우리나라에 약다운 약이 없던 시절이다(양영철(2014. 11. 0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2): 성 이시돌 의원의 탄생...환자가 물려들다. 참조).

외방 선교 수녀회'가 운영을 맡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매진하였다.⁷⁹⁾

성 이시돌 의원은 항상 적자에 시달렸다.⁸⁰⁾ 이시돌 의원은 처음에는 30%의 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70%의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난한 환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을 수 없어 60%가 무료이고 40%만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박재형, 2006:144). 점점 가난한 환자들이 늘어나자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나, 맥그린치는 이시돌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이시돌 병원 운영비로 내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게 되었다(양영철, 2013:66 참조).

이후 성 이시돌 의원은 내과·소아과·피부과·일반외과·정형외과로 진료과목을 확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77년 6월 22일 대통령 표창을, 1988년 5월 27일 법무부로부터 교정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3년 5월 31일 한국 여자 의사회로부터 한국 여의 대상을, 1997년 10월 4일 제주도로부터 만덕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감사장을 수여받았다.⁸¹⁾ 2007년 2월 성 이시돌 목장 부지로 이전하며 성이시돌 복지의원으로 변경한 성 의시돌 의원은 현재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요법으로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통증완화와 증상 조절을 필요로 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⁸²⁾ 전문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양영철, 2013:67).

79) 당시 골롬반 수녀회는 목포에서 성 골롬반병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목포 성 골롬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수녀의사인 베넵누수 수녀가 원장으로 부임했다. 간호사는 역시 그 병원에 근무하던 말타 수녀가 맡았다. 베넵누수 원장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한국 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양영철(2014. 11. 0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2): 성 이시돌 의원의 탄생...환자가 몰려들다. 참조).

이후 1976년 4월 엔다(메리 스타운톤, 소아과 전문의)수녀가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엔다수녀는 부임초기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호스피스 활동에 노력하면서 제주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교화 활동, 극빈자 돕기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11:628).

80) 당시 이시돌 의원의 인건비도 열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원장 수녀와 간호사 수녀는 무일푼 자원봉사나 다름 없었다. 방사선 기사, 임상병리사, 간호보조사, 관리직원 등 모두 그 시절 월급은 제주도립병원 직원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나마 약품을 비롯한 의료장비·소모품의 90%를 외국 원조기관에서 보내 줘 근근히 유지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었다. 병원의 적자는 이시돌 협회에서 충당해 주었다. 이시돌 협회 안에 성이시돌 병원부가 따로 있었고, 이시돌 협회의 이사장은 맥그린치 신부였다. 다행인 것은 당시는 이시돌 협회가 양돈은 물론 사료공장 사업에도 나서 성장을 거듭, 큰 이익을 내고 있었다. 병원 적자를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양영철(2014. 11. 14).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3):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 이시돌...협회를 건다).

81)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29 참조).

나) 성 이시돌 요양원⁸³⁾

한국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육지로 떠나게 되었고 이에 노인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병이 들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거나,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 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박재형, 2006:151).

“내가 부임할 당시 4.3으로 인해 과부가 많았습니다. 홀로 살던 할머니가 기아 상태로 발견돼 방에 모셔왔는데, 방이 부족하면서 이어 붙이고 또 붙여서 이상한 모양의 집이 됐죠. 이 집이 성이시돌 요양원의 시초가 됐습니다.”⁸⁴⁾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1981년 이시돌 목장 옛 사무실을 고치고 증축하여 14명의 노인들을 돌보다가 1984년에 정식으로 양로원 인가⁸⁵⁾를 받았다(박재형, 2006:153 참조). 1984년에 정식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이시돌협회 지원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천주교회 및 도내의 각 봉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주고 있다. 이후 양로원은 2002년 증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3년 양로원에서 요양원⁸⁶⁾으로 전환 하게 되었다.⁸⁷⁾ 현대식으로 지은 요양원에는 재활 치료에 필요한 기계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노인

82) 호스피스(hospice)는 종교 및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숙박소 및 빈민 행려병자 등을 위한 수용소로서, 최근 구미 의학계에서는 말기 암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는 연명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의 성(聖)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효시이다(위키백과사전).

83) 1981년 이시돌협회 산하 성이시돌 양로원이 개원되었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리지스 스미트 수녀가 초대원장을 맡아 성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철수(1998년)할 때까지 17년간 양로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1988년 6월 서울성가소비녀회의 민병숙 수녀가 취임하였으며, 2003년 노인주거시설인 양로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으로 전환하였다.

84) 제주일보(2013. 4. 28.). 좌동철 기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

85) 북제주군 노인 복지 시설 제1호.

86) 양로원은 노인주거시설이며,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87) 북제주군 제2호, 정원 60명. 이시돌 요양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isidorehome.or.kr>.

맥그린치가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만일 제주도에 사는 가톨릭 신자들이 어르신들을 한 분씩만 모시고 산다면 양로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양로원을 운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운영해야 할 것은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가톨릭 신자 한 가족이 어르신을 한 분씩만 모시고 산다면 양로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동을 못하거나 몸이 아픈 어르신만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어르신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박재형, 2006:155-156).

들의 재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여가 활동과 선호도 조사를 통한 요양원 고유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양영철, 2013:69).

라. 인간성 회복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 중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을 맥그린치 신부는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인간성 회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맥그린치 신부는 이시돌 목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자 제주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신심을 돌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박재형, 2006). 이에 1980년 이시돌 목장에 부설된 농업기술 중앙연수원이 문을 닫게 되자 이 건물을 피정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1981년에 기존의 농업기술 중앙연수원 건물을 개·보수하여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을 개관하게 되었다.

성 이시돌 피정의 집은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안에 머물며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의 일생을 표현한 은총의 동산, 묵주기도 연못, 성모동굴, 삼위일체 대성당, 목장의 초원 등이 어우러진 피정의 집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자연 순례를 위한 장소로 천주교제주교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즐겨 찾는다.⁸⁸⁾

2) 성 글라라 수녀원⁸⁹⁾

88) 성이시돌피정의집 블로그 참조, <http://www.isidore.or.kr/>.

89) 성 글라라 수도원은 1212년 3월 18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에 의해 창립된 수도원으로, 같은 해 8월 9일에 교황 인노센트 4세에 의해 성 글라라의 관상 봉쇄 수도원의 획적을 인준 받았다. 이어 1875년 12월 12일에는 이탈리아의 막달레나 벤티볼리오 수녀에 의해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1953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글라라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뒤인 1960년에 당시 광주교구장 현 하롤드 주교가 미네아폴리스 글라라 수도원을 방문 하였을 때, 한국의 제주진출을 요청하였다. 이때 미네아폴리스 수도원에서는 현 하롤드 주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한국 진출을 결정하

1972년 6월에 한국인 수녀 3명과 미국인 수녀 3명 등 모두 6명의 수녀가 맥그린치신부가 운영하던 성 이시돌 목장 연수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다. 제주 성 글라라 수도원에서는 1973년 맥그린치 신부가 기증한 이시돌 목장 내 부지에서 신축 수녀원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듬해 2월에 완공된 수녀원으로 공동체를 이전하고 축복 미사를 봉헌했다. 당시 공동체 가족은 모두 7명이었다. 이어 수도원에서는 1979년 2월부터 봉쇄 소성당 및 외부 성당, 수련소 건립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완공하고 봉헌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금악공소 신자들이 이 외부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수도원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 또한 1990년 7월에는 수녀들의 개인 피정을 위한 은둔 기도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1994년 3월에는 새 수련소를 완공하여 봉헌식을 가졌다.⁹⁰⁾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성령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도와 보속 생활을 통해 관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양창조, 2011), 자급자족과 기도생활의 조화를 위한 노동으로 알로에 재배와 젓소 사육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가난한 신자들과 주민들의 삶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살며 노동을 통하여 금악 지역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기도와 노동의 삶을 살고 있는 수녀님들의 가난하고 소박한 삶은 물질만능에 젖어 있는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교훈과 영적인 성숙의 기회를 주고 있다.

3) 삼피소 은총의 동산 및 삼위일체 대성당

삼피소⁹¹⁾는 호수 주위를 돌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름을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는 곳이다.⁹²⁾ 맥그린치 신부는 사람들이 육체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내내 정신적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고, 교황청에 독립 제주 글라라회의 인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1968년부터 2년 동안 3명의 수녀가 한국에 진출하였다(양창조, 2011 재인용).

90)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579-581).

91) 삼피소란 '세 개의 오름(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연못'을 의미한다.

92)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286).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이웃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찾았죠.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죠.” 93)

‘신부님은 피정에 온 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보고 돌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언제나 양 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신자들이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육체적인 가난보다 정신적인 가난이 더 문제이며, 육체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정신의 질병은 교회가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94)

특히 가난할 때는 가난만 몰아내면 하느님의 착한 백성이 될 것 같았는데 경제적인 부는 오히려 사람을 돈과 쾌락의 노예로 만들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생활을 막아버리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피정의 집을 운영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자캐오처럼 비록 타락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박재형, 2006). 그러던 중 당시 제주 교구장인 김창렬 주교가 이시돌 지역에 기도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그는 피정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봉우리 세 개가 연못을 감싸고 있는 새미소에 삼피소 은총의 동산을 꾸몄다(박재형, 2006:173~174). 또한 신심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과 제주 교구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큰 성당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삼위일체 성당을 짓기 위해 이시돌 목장의 일부를 팔아 삼피소 근처에 켈트 십자가 모양의 삼위일체 성당을 짓게 되었다(박재형, 2006:177).

은총의 동산과 삼위일체 대성당에서는 첫 토요일에 성모 신심미사와 묵주의 기도를, 셋째 목요일에는 성체 신심미사와 성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5월이 되면 교구 성모의 밤, 10월에는 교구 로사리오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삼피소에서의 기도 행사는 교구의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교구 신자들만이 아니라 제주를 찾는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순례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95)

93)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http://www.design.co.kr>.

94) 박재형(2006:173).

3.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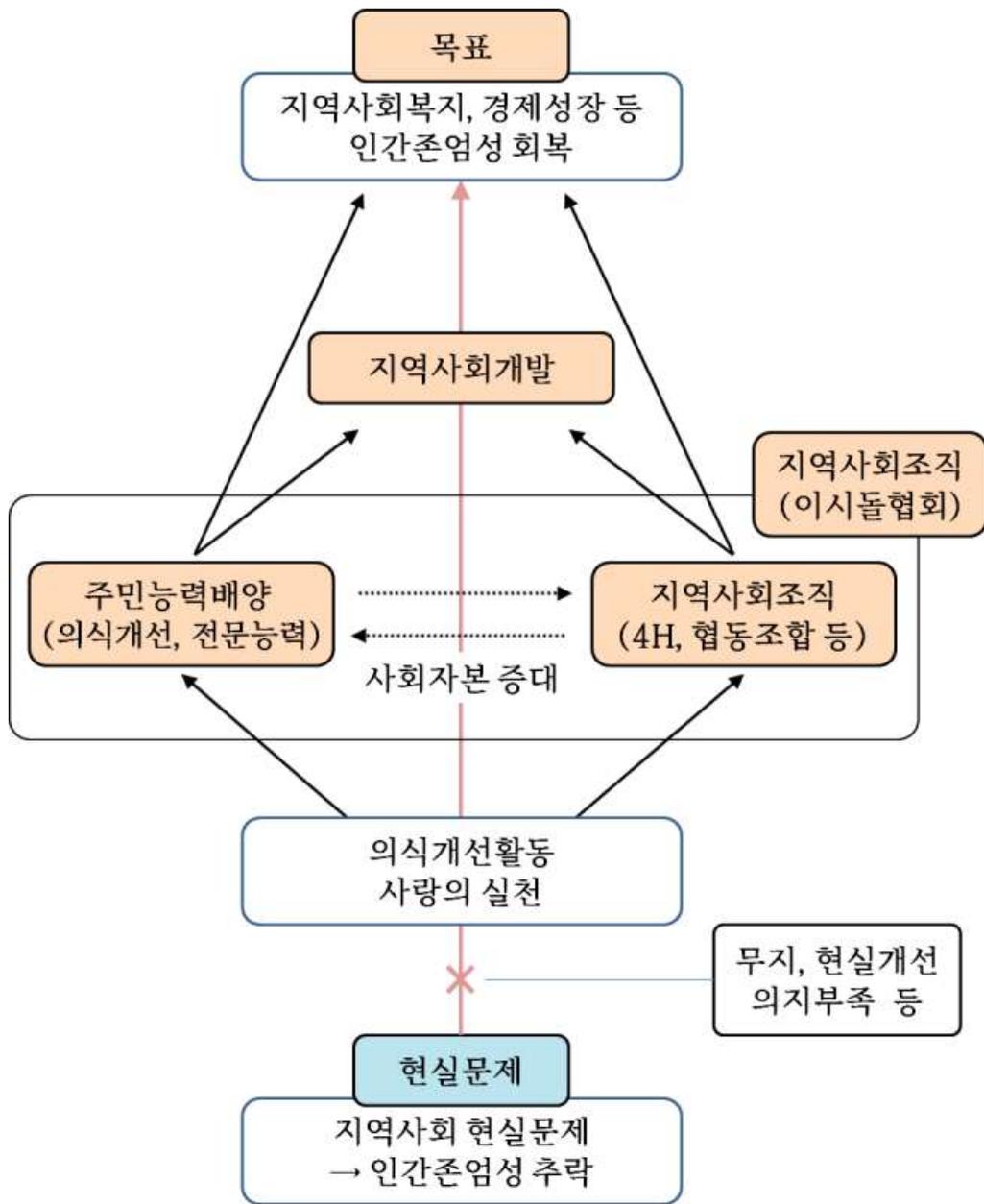
맥그린치 신부는 시대적 상황 안에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앞장섰다. 그의 제주지역사회 활동 초기인 1954년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의식개선 및 계몽활동 등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4H클럽이다. 이후 이시돌 중앙실습목장, 한림신용협동조합 및 직조강습소 등의 규모가 큰 활동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비영리재단인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였다. 이시돌 협회는 1960년대 이후 이시돌목장, 한림수직, 한림신용협동조합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자금 및 주거 등의 각종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는 헌신과 봉사의 희생정신과 실천적인 모범적 모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의 사랑의 실천정신과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은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갈 사회적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과, ‘지역사회교육의 결과는 지역사회복지’(김남선, 2013)라 한 것처럼 1970년 이시돌 의원 개원 및 1980년대 이후 복지병원, 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노인교육, 유아교육 및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진행되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사목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그림Ⅳ-1]과 같다.

95)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286 참조).



[그림 IV-1]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흐름도

V.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활동의 교육적 의미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은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 회복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한편 이러한 사회사목의 내용 안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활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기본토대가 지역사회교육이라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지역사회 개발측면(양영철, 1990), 지역사회복지 측면(권은진, 2014)의 연구와 가톨릭 사제로서의 선교적 측면(양창조, 2011)의 연구는 있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에 나타난 교육활동의 내용을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의 종합적 관계 안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사목 활동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교육활동의 내용

맥그린치 신부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범적 삶과 농촌 계몽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배움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실천을 위한 실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이러한 교육활동은 개인적 측면에서 의식개선 및 자아실현 즉 지역사회 교육이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가. 지역사회교육

맥그린치 신부가 사회사목 활동에서 실천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및 인간성회복 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일환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으로서의 지역주민 의식개선 활동과 직업전문교육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지역주민 의식개선

맥그린치 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문제의 본질 즉 오랜 시절 억압 속에서 수동적 삶을 살았던 생활에의 적응, 현실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부족과 개선의지가 있어도 무지로 인한 현실문제 해결 능력 부족을 인식하였다. 이에 그는 지역주민들을 단순히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지역주민의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그들의 삶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도착하였을 당시 6.25전쟁이 끝난 직후라 미국 가톨릭 단체에 의해 지원된 음식과 옷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무상 원조 방식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농부와 어부,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토론을 했다. 교사와 사업가들과 하던 토론도 줄곧 그 주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비관적 이었다.’⁹⁶⁾

“집집마다 변소 안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는 인분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돼지를 그런 식으로 기르면 안 된다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무려 5년 동안 툼툼이 성당을 지어가며 건의를 했지만 모두들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지를 길러왔는데 외국 사람이 왜 참견하느냐며, 신부가 아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했지요.”⁹⁷⁾

96) 양영철(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당시 지역주민들은 조상들이 못한 일이니까 우리도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못할 거라는 생각,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렸다(박재형, 2006:96).

맥그린치 신부는 주위의 무관심과 조소에도 지역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가난을 몰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실천 활동 즉 본보기를 통해 실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의 중산간의 땅을 에이커당 2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샀다. 쓸모 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게 당시 제주인들의 생각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그 땅이 쓸모가 있다는 것을 농부들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농부들도 자신의 땅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봤다.’⁹⁸⁾

‘그 약조건⁹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주민들과 토론에 나섰다 한 겨울 밤 자신의 숙소에 난롯불을 켜고 밤샘 토론과 설득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신부님, 안 됩니다”가 돌아오는 답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증거를 만들겠다고 작심한다. 성공모델을 제시할 생각이었다. 이 청소년들을 모이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 떠오른 게 4H였고, 결국 조직에 성공한다.’¹⁰⁰⁾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이끌고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4H클럽을 조직하였다. 4H클럽은 새로운 농사기법 및 다양한 내용에 대해 학습하며 실천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는 실천적 학습공동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의식 개선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97) 양영철(20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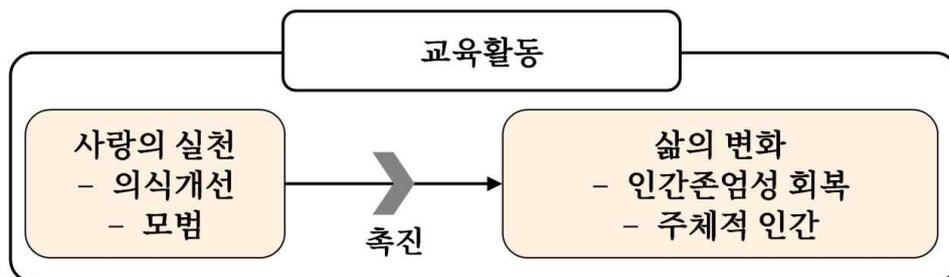
98) 양영철(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99) 1957년 제주도에 4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 제주도 농촌의 60%인 3만가구 15만 명이 곡식이 전혀 없는 절양농가가 되었다. 한라산 갈대의 열매가 구황식물로 대체 될 정도였다(양영철(2014. 01. 2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들의 역사를 쓰다).

100) 양영철(2014. 01. 2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들의 역사를 쓰다.

정민승(2002)은 학습에 대한 지원의 예로 환경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기보다는 ‘지역 환경도우미’들의 활동을 보면서 혹은 소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정민승, 2002)이라 하였다. 또한 줄리안과 레슬리(Julian & Lesley, 2001)는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들은 학습 요소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참여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반드시 학습하게 될 것이다(Julian & Lesley, 2001).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 과정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또는 사회 실천 활동, 지역지향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학습 과정인 것이다(박상옥, 2010 재인용).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의식개선 활동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고, 그 과정이 곧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맥그린치 신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2) 전문교육

맥그린치 신부는 다양한 사회사목활동에서 모범적 실천과 지역주민들을 조직에 참여하게 하여 의식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의 전문적 능력을 증진하여 실천적 삶 즉 주체적인 자립 활동을 돕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수직강습소를 통한 여성들의 기술교육이다. 면양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양을 사들이고 4H회원들과 함께 양을 길렀다. 어느덧 면양에서 수북한 털을 생산해 내었고, 4H여성회원들이 양말을 짜기 시작했지만 실력과 경험을 가

진 이가 없었다. 이에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에서 수직 전문 수녀를 지원받았고, 수녀들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농업훈련센터’¹⁰¹⁾를 설립하여 전문적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분야 교육기관으로 목축, 여러 종류의 개량 농기류 및 기계 사용·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¹⁰²⁾ ‘농업훈련센터’는 1970년에 중앙연수원을 건립한 이후 ‘농업기술연수원’으로 개칭하였다. 이곳에서는 숙박비·수업료·교재 등 일체 경비를 연수원에서 부담하고 연수생들에게 양돈·면양·비육우 등의 사육 방법, 목야지 조성법, 목초 건조법, 사일레지 처리법과 가공법, 트랙터 운전과 정비법 등 농업 전문 지식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였다.¹⁰³⁾

나. 지역사회 교육환경 조성

맥그린치 신부는 실천적 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처럼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촉진적 역할로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사회사목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교육이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실천 환경조성은 단순한 교육활동이 아닌 현실의 삶과 연결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 성장과정에 폭넓게 관여하는 인간성장으로서는 종합적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인적지원

맥그린치 신부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학습 및 연구하고, 다른 이들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넓혀가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

101) 성 이시돌 농업기술연수원의 전신

102)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616).

103) 오마이뉴스(2007. 8. 17.). “축산으로 선교와 사회복지 일구는 이시돌 목장”, 장태욱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8873

육전문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우선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여성들이 ‘성 골롬반 수녀회’의 수녀들을 통해 전문적 직조기술교육을 받도록 도왔다.¹⁰⁴⁾ 수녀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방직공장과 수예학교에서 이수한 직조 기술교육을 지역 여성들에게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또한 목초를 개발하고 영국적인 방목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자 양 사육 전문가인 제프(Geoff)를 통해 제주에 맞는 방목 시스템을 이루어내었고, 양털 깎는데 능숙한 피터 티어니(Peter Tierney)신부를 통해 농부들에게 양털 깎는 방법을 가르쳤다.¹⁰⁵⁾ 이외에도 농업기술연수원에서 농업전문 지식 및 기술교육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아일랜드 등지에서 축산 기술 요원을 초빙하여 제주·전라·강원도 지역의 축산 농가들에게 기술 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였다¹⁰⁶⁾

젊음의 집에서는 청소년 사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살레시오 수녀회¹⁰⁷⁾에게 운영책임을 맡겼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평생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 ‘성 요한 보스코’ 성인¹⁰⁸⁾의 예방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의 심신단

104) 1962년 제주에 처음에 온 세명의 수녀들은 메리 에디나 켄리(Mary Ethna Kenry)와 메리 리콜리 타프(Mary Ligouri Taffe), 그리고 로사리아(Rosarii Mctigue)였다. 그 다음에 데크리안과 이멜다가 왔다. 수녀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방직공장과 수예학교에서 아일랜드 트위드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색의 배합과 섬세한 패턴들을 짜는 방법을 배우고 왔다(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105) 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106)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2011:617).

107) 살레시오수녀회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청소년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성 요한 보스코 (St. Giovanni Bosco, 1815-1888) 와 시골의 작은 마을 모르네세 출신인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에 의하여 공동창립되었다. 현재 5대륙, 92개 국가에 뿌리를 내렸으며, 14,000여명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이 돈 보스코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살레시오수녀회 홈페이지, <http://salesiansisters.or.kr>).

108) 1815년 8월 16일 이탈리아 베키 출생이며, 아홉 살 때의 꿈을 계기로 사제성소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26세가 되던 1841년 토리노 교구의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된다. 공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던 가난한 시골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시작하였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오라토리오’라 부르는 기숙사를 세워 정직한 시민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해 기술과 공부를 가르친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하고,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라는 확신처럼 돈 보스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청소년 특히 보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다 내어주고 1888년 1월 31일에 선종한다. 그리고 1934년 부활절,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성인으로 반포되어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이라는 칭호를 받는다(살레시오수녀회 홈페이지, <http://salesiansisters.or.kr>).

런, 자질배양, 정서함양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진로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뿐 아니라 특별한 테마여행도 진행하고 있다.¹⁰⁹⁾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교육지원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배양한 이들을 교육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능력을 교육하도록 하는 교육 나눔 활동을 하였다. 면양사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아가다란 세레명을 가진 젊은 여신도를 그 무렵 제주시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냈고, 교육을 받고 되돌아온 아가다는 다시 15명의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¹¹⁰⁾ 이후 면양사업이 성장하자 한림수직의 여성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에게 일감을 맡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림수직에는 직원이 두 형태다. 실제로 물레로 제품을 만드는 여성들은 정규직원이다. 한창일 땐 40명을 넘었다. 또 다른 직원은 일종의 재택근무자다. 양털에서 뽑은 실을 집에 갖고 가 디자인 한 대로 짜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무려 1300명에 이를 정도였다. 늘 500명은 있었다. 한림이나 한경면에서 사는 주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도 각 지역 여성들을 썼다’ 111)

2) 물적지원

맥그린치 신부는 4H클럽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재를 지원하고, 실습을 위한 돼지와 닭 및 씨앗을 마련해주고, 중앙실습목장 조성과 해외원조를 통한 트랙터의 도입을 통해 축산실습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 다양한 물적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의 설립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의 설립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1950~60년대의 적극적인 의식개선활동과 농촌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단체인 4H클럽, 50년대 말 수직강습소를 시작으로 1960~70년대에는 실질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농업훈련센터 및 농업기술연수원, 1980~90년대에는 교육복지

109) 성이시돌젊음의집 홈페이지 참조. <http://www.youthhome.co.kr>.

110) 양영철(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111) 양영철(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기관인 노인대학, 성 이시돌 사회교육연수원, 젊음의 집, 어린이집의 형태로 시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4H클럽을 조직하였다. 4H클럽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실천 활동을 통해 주체적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하였으며 특히 마을개선사업, 면양사업, 이시돌목장 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로 실질적 능력배양을 위한 수직강습소, 농업훈련센터 및 농업기술연수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 자립 활동의 역량을 키우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확산은 이러한 전문기술교육을 활성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경제적문제해결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교육기관 설립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 중 인간소외 현상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아직도 그 시대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문제인 노인소외, 육아문제, 청소년일탈문제 및 인간성 회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노인대학, 성 이시돌 사회교육연수원, 젊음의 집, 어린이집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기관의 설립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총체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교육소외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 이시돌 사회교육 연수원

맥그린치 신부는 1980년에 이시돌 목장에 부설된 농업기술중앙연수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기존의 건물을 신자들의 피정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81년 ‘성이시돌 피정의집’이 세워지자 제주교구에서 열리는 많은 피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는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던 때였으므로 목장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피정의 집은 항상 가득하게 되었다(양창조, 2011).

그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쫓기거나 전자오락, 패싸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가출하여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주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센터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1990년 기존의 피정의 집을 증축 완공하였고, 1993년에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성 이시돌 사회교육 연수원’ 개설을 정식으로 인가받은 뒤 1994년 10월 개원식을 가졌다. 사회교육 연수원은 피정 센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박애심·잠재력과 창의성 개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앞서 맥그린치 신부는 1994년 7월 청소년 사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살레시오 수녀회를 초청하여 연수원의 운영 책임을 위임하였고, 수녀회에서는 특히 돈보스코 성인의 정신을 통해 연수원이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을 ‘성 이시돌 젊음의 집’으로 개칭하였다.¹¹²⁾

이후 1999년 5월 연수원 제2관을 증축하게 된 ‘성 이시돌 젊음의 집’은 “나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하고,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청소년의 아버지며 교육자인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¹¹³⁾정신을 바탕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리더십교육, 진로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뿐 아니라 특별한 테마여행도 진행하고 있다.¹¹⁴⁾

(2) 성 이시돌 노인대학

1982년 7월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성 이시돌 경로당’을 개설하고, 같은 해 9월에 같은 장소에 ‘노인 학교’를 개교하였다.¹¹⁵⁾ 노인 학교에서

112)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22 참조).

113) 청소년들에 대한 존중,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친밀감, 인내와 상냥함을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이성적이며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와 좋은 본보기, 인내, 즐거움, 애정, 절대적인 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성이시돌젊음의집 홈페이지, <http://www.youthhome.co.kr>).

114) 성이시돌젊음의집 홈페이지 참조, <http://www.youthhome.co.kr>

115)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23 참조).

는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서예 등을 교육하며, 기타 민속놀이 등으로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1984년 9월 제1회 노인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1985년 5월 ‘성 이시돌 노인 복지 회관’의 증축 개관식을 갖고 노인 학교를 ‘성 이시돌 노인대학’으로 개칭하였다. 복지 회관은 이후 1988년 3월 정식 인가¹¹⁶⁾를 받았다.¹¹⁷⁾

(3) 성 이시돌 어린이집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부모가 밭이나 바다에 일을 다니다보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비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맡아 줄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 이에 맥그린치 신부는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며 농촌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알맞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5년 3월 ‘성이시돌 유아원’을 금악리에 개원¹¹⁸⁾했다(양영철, 2013).

이어 1985년 7월에는 ‘한림 성 이시돌 유치원’¹¹⁹⁾을 개원하였으며, 같은 날 기존의 신창 유치원을 인수하여 ‘신창 성 이시돌 유치원’¹²⁰⁾으로 개원하였다. 이 두 곳의 유치원은 1994년 2월 각 지역본당으로 운영을 이관하였다. 1985년 3월 설립된 ‘성이시돌 유아원’은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2005년 현재의 건물을 새로이 지어 2~7세의 9학급으로 구성되어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악 성 이시돌 어린이집’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¹²¹⁾

나) 재정지원

맥그린치 신부는 사회사목 활동을 위해 별도로 비영리단체인 이시돌협회를 조직하였으며 모든 사회사업들은 이시돌협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시돌협회는 농업기술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숙박비·수업료·교재 등의 일체 경비를 연수원에서 부담하였다. 특히 재정지원은 단순히 교육활동

116) 복제주군 제3호

117)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23 참조).

118) 1985년 3월 7일 2학급 80명(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11: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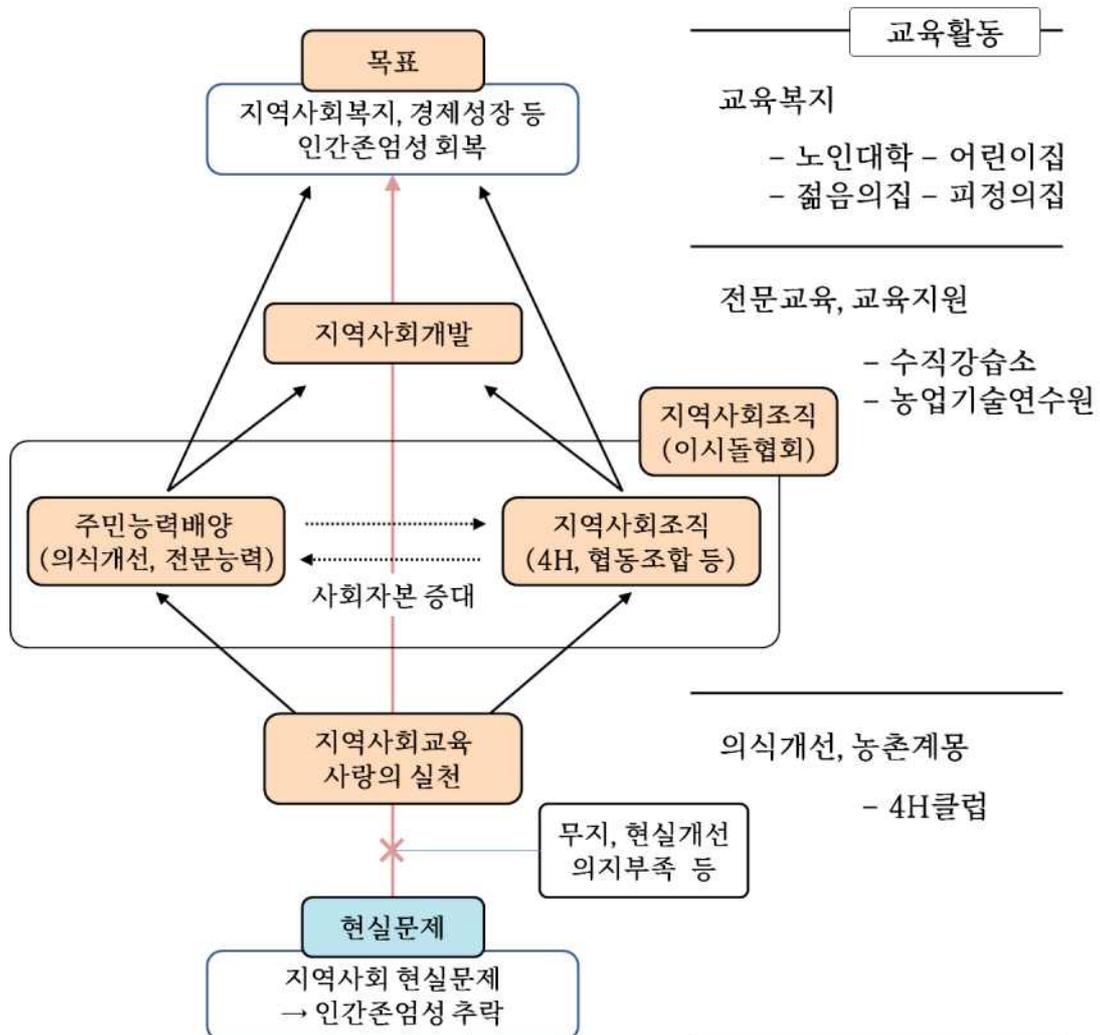
119) 2학급 80명

120) 설요한 신부가 맥그린치의 도움으로 개원하였으며, 1학급 40명으로 편성.

121) 제주 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11:619).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료 지원, 가축분양, 주택지원 뿐만 아니라 한림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특히 이시돌목장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젊음의 집, 피정의 집, 어린이 집 등 다양한 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의 교육활동을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흐름도[그림Ⅳ-1]에 맞추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림Ⅴ-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Ⅴ-2]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

2. 교육활동의 특성

맥그린치 신부는 60여년을 제주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인간존엄성 실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지역주민의 주체적 삶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은 무엇보다 맥그린치 신부의 사랑의 실천 즉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그의 제주지역사회 교육활동에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

이해주(2011)는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의식도 생기게 되며 지역사회의 주인의식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서 지역의 참 주인이 되는 것이며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이해주, 2011:56)하였다. 다시 말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과정에서 공동체의식과 주인의식이 생겨나며 이러한 것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주(2011)는 지역중심 학습공동체 운동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참여와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것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이해주, 2011:56)고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작은 무엇이라도 실천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의 현실문제 해결로서의 교육기회를 창출하고, 모범적인 실천행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실천적 삶으로 참여하게 하며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교육을 위한 인프라로 수직강습소와 농업훈련센터 등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기회를 창출하였다. 기술교육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켰고 이러한 고용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해있던 여성들의 직조강습소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직업의 기회를 창출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어려운 형편과 부모 모두 일을 다녀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에서 소외받으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노인들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복지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을 돌보았던 사랑의 실천에서 나온 활동이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단순한 자립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 즉 사회·문화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던 이들의 단절과 고립을 풀어주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무엇보다 다양한 현실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들과 서로 협력하는 참여와 실천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향상시켰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을 지역의 참 주인이며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나. 지역사회 역량증진을 통한 종합적 발전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유아 및 어린이교육, 청소년, 성인직업교육, 노인교육, 호스피스병동 등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전 발달단계에 걸쳐 있는 평생교육적 교육활동이며 지역사회가 지속적 발전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교육활동의 연장 즉 평생의 역량증진을 통해 사회의 종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었다.

원시시대로부터 인간의 교육은 평생의 학습으로 특징 지워졌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과 태도와 기

술을 습득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의 노력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었다. 만일에 이러한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중지할 때에 그 인간은 곧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상실함으로써 결국에는 부적응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자연 도태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교육은 생활의 필요조건이며 평생을 통한 과업인 것이다(황중건, 1994).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Dave(1976: 11)는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활동 전부를 포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조용하 외, 2001 재인용).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지식전달과 같은 한순간의 교육 즉 교육을 학습자의 삶과 관계없이 오직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일로 간주하는 전통적 교육관(김민호, 2003 재인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한 인간성장의 교육활동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 발달단계상 교육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인간발달단계 어느 한 방면에 치중된 것이 아닌 다양한 연령계층에서 인간성장으로로서의 역량증진을 가져온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의 평생에 걸친 인간 역량증진으로서의 교육적 활동은 먹고살기 힘든 시절 의식주의 해결과 의식개선 등의 주체적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후 경제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육아문제, 노인문제, 인간성회복 문제 등과 같은 시대적 필요를 감지하며 교육활동을 생활전반으로 확장해 갔다.

즉 맥그린치 신부의 평생교육적 교육활동은 지식전달 및 일순간의 교육자체 다시 말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주민들이 현실적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며, 이러한 현실 역량을 통해 개인의 삶을 실천하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한편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교육 활동은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에 대해 L. Nelson(1960:414-416)등은 지역사회개발은 원래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활동을 주민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며(허훈·김종수, 2008 재인

용)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교육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은 일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변화를 위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수행해가며 이 과정에 관련된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교육의 연계적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태도 및 행동변화와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술향상, 소득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및 자립을 도왔다. 한편 지역의 공통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화를 통해 지역주민을 참여하게 하며 실천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복지체제 확립, 교육체제 확립 등의 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종합적 발전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맥그린치 신부는 헌신과 봉사의 희생정신과 실천적인 모범적 모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의 사랑의 실천정신과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은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갈 사회적 토대를 만들었다.

다. 교육지원을 위한 조직화

맥그린치 신부는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인간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 및 촉진적 역할로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실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교육 지원적 특성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의 교육행정과는 다르긴 하지만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조직·관리하는 제반 지원활동 즉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행위를 능률적으로 조성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의 과정으로서의 교육행정이라 할 수 있다(남정걸, 2013 참조).

맥그린치 신부는 다양한 사회사목 활동에서 교육전문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교육 나눔을 통해 교육이 확산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적지원 외에 교육기관의 설립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통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교육기관의 운영재정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영농개선 활동 및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천 활동을 위한 4H클럽과 같은 실천적 학습공동체를 운영·지원하였으며, 비영리 단체인 이시돌협회의 조직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

맥그린치 신부는 사제로서의 선교활동 이외에도 교육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삶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복지실현 등 지역사회를 발전시켰다. 특히 이러한 교육활동은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어려움에서 구하고자 온전한 삶의 회복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사랑의 교육을 실천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내용은 아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웃을 사랑하라. 일자리 만들어주면 진짜 도움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실천한 거죠 우리의 의미적인 도움은 정말로 상대방을 존엄성 있고 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¹²²⁾

맥그린치 신부는 시대적 상황이 변모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변화하고자 했던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교육활동은 의식주의 해결과 의식개선 등의 주체적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경제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육아문제 및 노인문제 등과 같은 시대적 필요를 감지하며 사랑의 교육활동을 생활전반으로 확

122) 협성사회공헌상 인터뷰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9AA-EcRL90U>.

장해 갔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을 인간성회복이라는 본질적 인간으로서의 삶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며 그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즉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교육활동은 지역사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이것은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이 단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활동이 아님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맥그린치 신부가 추구한 최종의 목표였던 인간존엄의 가치는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한 가치를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곳에서 인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어느새 인간존엄의 가치는 사라지고 가치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만 남아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은 현재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귀감이 될 것이다.

3. 교육자로서의 맥그린치 신부

교육자(educational agents)는 반드시 인간의 학습을 위해 설립된 제도화된 교육기관의 교육자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든 아니면 학습의 촉진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든 의식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자라 할 수 있다(김민호, 2003).

맥그린치 신부는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교육자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인간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학습의 촉진을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꾀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량을 극대화시키며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의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주체적 변화를 이루고자한 활동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평생학습의 패러다임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의 존재이유를 지식, 실천들이 맥락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해석되며, 학습자는 맥락의 실천주체이자 해석주체라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인식론을 수용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는 정민승(2002)의 연구를 통해 일순간의 교육활동이 아닌 인간 ‘삶’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촉진활동을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운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자적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정민승(2002)은 사회교육자는 학습자의 삶의 장면들을 읽어내고 일정한 방향으로 견인해내는 것을 기본 소명으로 한다. 학습자의 삶에서의 자기주도성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교육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였으며, 이런 학습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였다(정민승, 2002). 이러한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의 생활맥락을 사회적 차원에서 읽어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첫 번째 요소는 정형화된 요구분석으로는 다차원의 생활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자는 학습자의 필요를 해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상황을 나름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사회상황과 사건이 학습자의 삶의 국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교육자는 사회와 학습자에 대한 ‘해석자’일 때에야 비로소 교육기획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향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여기서 ‘지향성’이란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추수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자/기관의 방향을 제시함을 의미한다고 하며,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자의 상상력에 의한 일종의 창조물이고, 학습자의 욕구는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기보다는 ‘지역 환경도우미’들의 활동을 보면서 혹은 소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곧 교육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학습자가 배움의 지형을 넓힐 수 있도록 ‘욕구를 자극’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일이다. 정민승(2002)은 사회교육에서 학습자가 허탈하게 돌아서는 이유는 배움이 다음 배움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번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를 어떻게 지속적인 학습으로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로 배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 배움의 내용을 사회에 다시 적용하는 조직을 통해 학습자들은 배움을 ‘쓰고 버리는’ 정보로가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될 것이며, 학습자의 조직화야말로 학습을 살아있게 하는 교육자의 최대 소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자가 당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자의 윤리성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과 결합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교육자의 역할이라면, 그것은 학습자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자는 학습자가 학습하고 난 후의 ‘삶’이 행복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로 의문을 제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교육자의 역량은 아마도 자신의 실천을 충분히 학습자 입장에서 고려할 줄 아는 인간주의적 심성의 깊이에서 찾아질 것이다(정민승, 2002 참조).

이를 종합해보면 정민승(2002)은 사회교육에서 교육자는 학습자의 욕구를 읽어 낼 뿐 아니라 생동하게 만들고, 학습과정의 주인이 되게 하며, 후속 조직 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역할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과정에 일시적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적 교육 환경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게 지원하는 핵심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의 정민승(2002)의 사회교육자의 세 단계의 역할 모델을 바탕으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교육자의 역할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맥그린치 신부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치의 실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주민들과 만60년을 함께 지내오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상황과 사건이 학습자의 삶의 국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도록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보리나 조 농사를 짓고, 해녀들이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해산물을 팔아 살아갔지만, 값이 싸서 살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나 당시 제주도를 휩쓸었던 4·3사건으로 인해 중산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로 피난을 와 있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피난을 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¹²³⁾

“집집마다 변소 안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는 인분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돼지를 그런 식으로 기르면 안 된다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무려 5년 동안 툼툼이 성당을 지어가며 건의를 했지만 모두들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지를 길러왔는데 외국 사람이 왜 참견하느냐며, 신부가 아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했지요.”¹²⁴⁾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수익성 없는 당시의 축산 방법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외국사람인 제 말만 듣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말만 했어요.”¹²⁵⁾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이웃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찾았죠.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죠.”¹²⁶⁾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사회의 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며 생활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고 직접 사회사목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민승(2002)의 두 번째 단계인 지향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맥그린치 신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현실세상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활동에 지향을 두고 교육 및 사회사목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과 상호교류하며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과 더불어 직접 실천하며 지역의 주민들을 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자신의 문제를 일깨우는 성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자극하였던 것이다. 또한 맥그린치 신부는 이후의 모든 사회사목 활동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현실세상에서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123) 박재형(2006:73).

124) 양영철(2013:31).

125) 헤드라인제주(2010. 11. 29.). 아일랜드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 조승원기자.

126)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http://www.design.co.kr>.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직접 전도하진 않았어요. 왼손 모르게 오른손으로 하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죠. 조용히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 같아요.” 127)

세 번째 단계의 사례로 맥그린치 신부는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였으며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실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H클럽을 조직하여 배움이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배움의 실천을 통해 배움과 실천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였다. 4H클럽 이후에는 이시돌협회를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무엇보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교육실천 환경조성을 통해 현실적 삶과 연결된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간 삶의 성장 전반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전문성을 길렀으며, 교육 이후 한림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자립을 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료지원, 가축지원, 주택지원, 대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현실적 삶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긍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 외에도 수직강습소의 전문기술교육을 토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승(2002)이 언급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과 결합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교육자의 역할이라면, 그것은 학습자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자는 학습자가 학습하고 난 후의 ‘삶’이 행복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의 의문에서 교육자의 인간주의적 심성의 깊이를 이야기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립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사랑의 실천과 나눔 정신을 통해 매순간 드러나며 다시

127)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http://www.desig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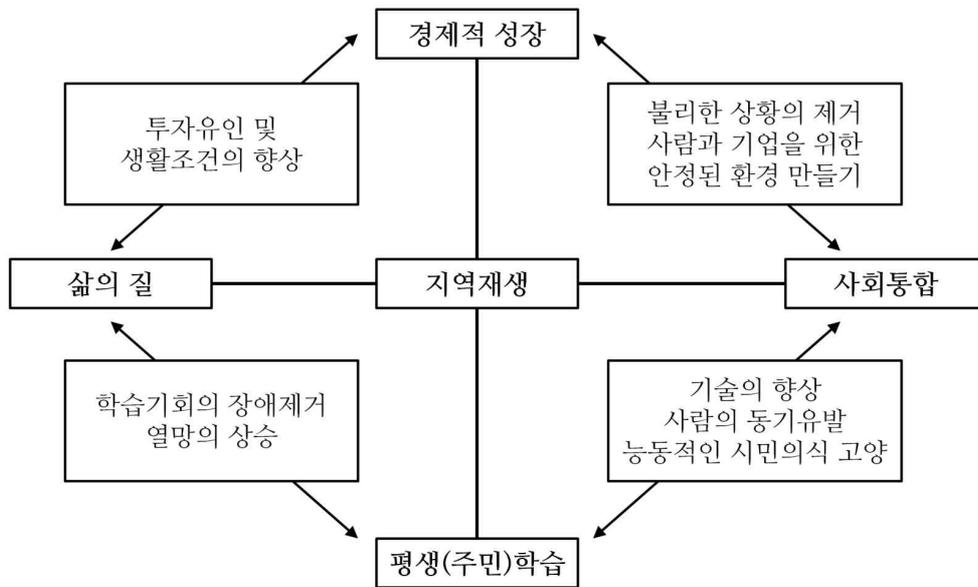
말해 어느 한 순간에서의 지식전달이 될 수 없다. 즉 지역주민의 일시적 순간이 아닌 인간존엄성 실현이라는 ‘삶’의 행복을 위한 존재적 삶의 변화를 추구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민승(2002)의 사회교육자의 세 가지 단계의 역할 측면에서 살펴본 맥그린치 신부는 정민승(2002)의 모델을 실천적 사례로 완성하였다. 1954년 제주에 정착한 이후 만60년 동안 희생정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성장을 지원한 그의 모습은 깊은 사랑으로 교육실천에 몸을 바친 위대한 교육실천가인 페스탈로치와 닮아 있다.

4.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실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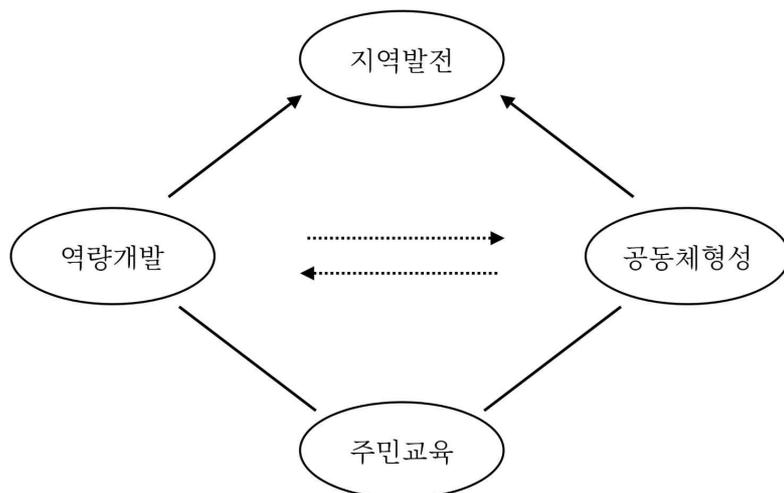
맥그린치 신부는 단순한 지역사회발전이 아닌 인간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몸소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며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사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증대시켰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하였으며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복지를 이루어내었다.

이처럼 지역사회 발전의 시작은 바로 사랑의 실천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지역사회발전에 따른 교육 메커니즘에 대해 영국의 반슬리(Barnsley)는 반슬리 모델을 통해 학습이 어떻게 지역재생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방정은, 2013 재인용). 이 모델에서는 학습이 촉진됨에 따라 학습기회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며, 학습의 기회는 증가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적 통합, 경제적 성장이 종합적으로 성장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임을 강조한다(방정은, 2013).



[그림 V-3] 학습이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과정(Barnsley 모델)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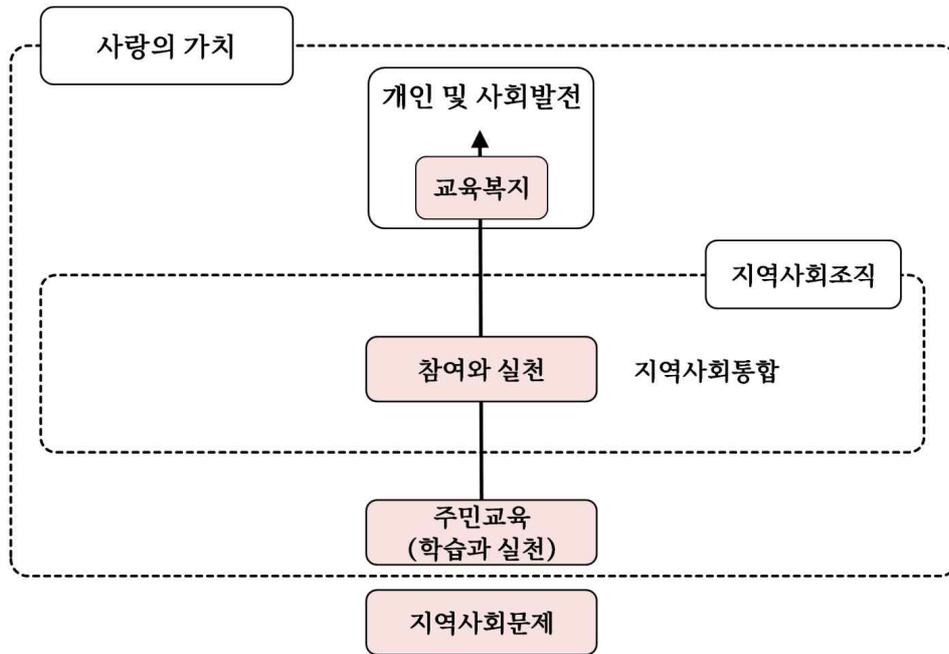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방정은(2013)은 ‘지역재생과 지역사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은 지역자체의 역량개발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나타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역발전을 이뤄가는 것이다’고 하며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사회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그림 V-4]와 같다.



[그림 V-4]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사회교육 모델¹²⁹⁾

128) 방정은(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그림 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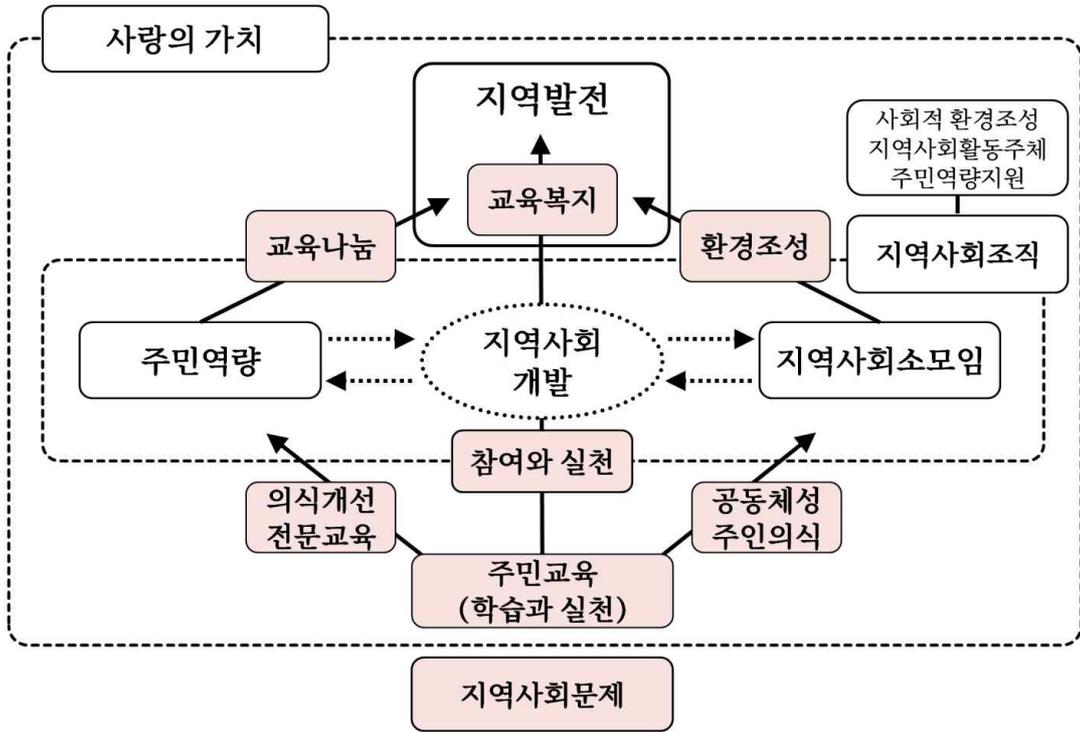
[그림 V-5]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

학습과 실천이라는 주민 교육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내며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적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이끌 조직을 생성하며 지역사회를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지역사회 내 소규모 조직, 지역사회와 지자체 등의 연결고리 형성과 참여활동지원 등 사회적 환경조성과 실천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교육복지가 실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과정에서 사랑의 가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랑의 가치가 헌신과 봉사 나눔이라는 형태로 실천될 때 지역사회통합과 지역사회발전은 명확한 형태 즉 온전한 발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129) 방정은(2013).

이상의 개념 모델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그림 V-6]과 같다.



[그림 V-6]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I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현실적 삶에서의 작용이다. 교육은 학습과 실천이라는 주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지역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의지 등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므로 가치함양을 위한 인문교육,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교육,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및 실천 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참여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성과 주인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막연히 주어진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체적 역량의 축진을 위한 환경조성(예를 들어 모임장소 및 학습자료 제공 등) 및 지역사회통합에 앞장서는 선도자로서의 모범 역할을 할 리더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의 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소규모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의 문제해결 혹은 지역사회개발을 실천하는 공동체(혹은 상위조직)를 생성하게

되며 공동체(혹은 상위조직)는 지역사회문제해결 혹은 지역사회개발을 이끌어 가는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비영리단체인 이시돌협회를 조직하여 신용협동조합, 수직강습소, 한림수직, 이시돌목장, 사료공장, 젊음의집, 노인대학, 이시돌의원, 호스피스병원, 어린이집, 양로원 및 요양원 등 다양한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관 사이에서 다양한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소규모 조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활동주체로서 주민역량을 지원하며, 교육 및 다양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개인)과 지역사회조직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인식을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주민들의 교육나눔 및 봉사활동, 지역사회조직의 교육환경조성 및 교육실천 환경조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복지는 지역발전의 하나의 모습인 동시에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과정에서 사랑의 가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랑의 가치가 헌신과 봉사, 나눔이라는 형태로 실천될 때 지역사회통합과 지역사회발전은 명확한 형태 즉 온전한 발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실천모델을 통해 다른 지역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에 앞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의 원인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였고, 내생적 지역사회개발을 이끌었으며, 의료·교육·사회분야의 복지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이룩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해결의 목적을 가진 활동이 아니었으며,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고 한 사랑의 실천이며 교육적 활동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변화를 통한 활동 안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찾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랑의 교육자라 할 수 있는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에서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이며 왜 하였는가?

둘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맥그린치 신부의 교육활동은 어떠한 모델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기초한 사례연구로 인터뷰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우선적으로 맥그린치 신부의 생애와 사회사목 활동의 자료를 토대로 사회사목 활동의 계기를 도출한 후 사회사목을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복지, 인간성회복의 틀로 살펴보았으며 사회사목 활동의 흐름을 도출하였다. 이후 사회사목 활동에서 드러나는 교육 내용을 정리한 후 교육자로서의 맥그린치 신부와, 교육활동의 특성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실천모델을 제시해 보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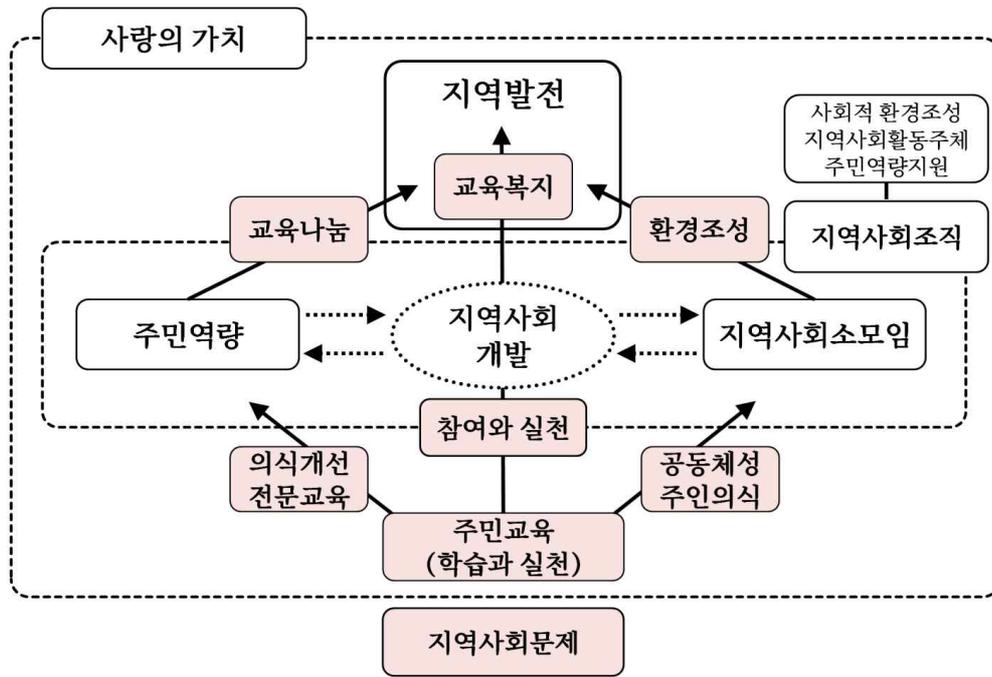
먼저 맥그린치 신부는 실천적 의식개선 활동과 전문직업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H클럽 및 이시돌협회를 조직하여 교육활동을 촉진하였다.

이어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에서의 교육활동의 특성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①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 추구 ② 지역사회 역량증진을 통한 종합적 발전 ③ 교육지원을 위한 조직화 ④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이다.

이러한 교육내용 및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사목 활동과 사회교육자의 역할 모델¹³⁰⁾(정민승, 2002)을 토대로 사랑의 교육자인 맥그린치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을 도출하였는데 다음 [그림 VI-1]과 같다.

130) 학습자의 생활맥락을 사회적 차원에서 읽어내는, 학습자가 배움의 지형을 넓힐 수 있도록 '욕구를 자극'해야 하는,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세 가지 단계와 학습자의 '존재'를 변화하는 삶의 전반적 성장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정민승, 2002 참조).



[그림 VI-1] 지역사회 교육활동 실천모델 II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현실적 삶에서의 작용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과 실천이라는 주민 교육활동을 통해서 진행되며 지역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의지 등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므로 가치함양을 위한 인문교육,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교육,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및 실천 활동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참여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성과 주인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막연히 주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체적 역량의 축진을 위한 환경조성(예를 들어 모임장소 및 학습자료 제공 등) 및 지역사회통합에 앞장서는 선도자로서의 모범 역할을 할 리더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의 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소규모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의 문제해결 혹은 지역사회개발을 실천하는 공동체(혹은 상위조직)를 생성하게 되며 공동체(혹은 상위조직)는 지역사회문제해결 혹은 지역사회개발을 이끌어 가는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비영리단체인 이시

들협회를 조직하여 신용협동조합, 수직강습소, 한림수직, 이시돌목장, 사료공장, 젊음의집, 노인대학, 이시돌의원, 호스피스병원, 어린이집, 양로원 및 요양원 등 다양한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관 사이에서 다양한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소규모 조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활동주체로서 주민역량을 지원하며, 교육 및 다양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개인)과 지역사회조직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인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추구하게 되며 주민들의 교육나눔 및 봉사활동, 지역사회조직의 교육환경조성 및 교육실천 환경조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복지는 지역발전의 하나의 모습인 동시에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과정에서 사랑의 가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랑의 가치가 헌신과 봉사, 나눔이라는 형태로 실천될 때 지역사회통합과 지역사회발전은 명확한 형태 즉 온전한 발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학교체제하에서의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과는 다른 ‘삶’의 성장과정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이야기 한다.

2. 결론

맥그린치 신부는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변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든 사랑의 교육자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생애와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에서의 교육내용을 통해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지역 사회사목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교육이 지역사회개발의 필수요소이며 지역사회복지 등 종합적 지역발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론적 논의를 하나의 실천적 사례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육은 인간이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세워 나가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의 개인적인 과정은 물론 사회적 과정 전반에 걸친 인간화를 지향하는 규범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유현옥, 2005).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육은 인간의 질적 삶의 향상보다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수단적 도구로서 획일화된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삶을 위한 교육 활동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생활전반의 교육활동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왜곡하여 진행되어온 수단적 도구로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 성장으로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실천적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가 2010년 이시돌협회 이사장직에서 은퇴하였지만 지역 사회 활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시돌협회에서 이전과 같은 교육실천활동을 통한 개인의 주체적 삶의 증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조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은 형식적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사업과 지역복지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역사회사업과 지역복지 차원에서의 유지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새롭게 전환되는 패러다임 안에서 맥그린치 신부가 이룬 지역사회 공동체 또한 새로운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토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의 실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가 최근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및 마을 만들기에 관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성장과정으로서 지역사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현실적 삶의 작용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과 실천이라는 주민 교육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지역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의지 등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므로 가치함양을 위한 인문 교육,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함께 활동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일 속에 학습은 내포되어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지역사회의 장을 형성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이다(박상옥, 2010). 다시 말해 실질적 참여와 참여과정의 상호관계를 통해 의식개선과 실천 활동 역량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제대로 알기 위한 지역탐방 프로그램, 지역에 대한 역사교육, 지역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 참여를 위한 촉진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전문능력배양 없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기에 실천적 전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전문적 리더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적 리더교육은 단순히 전문적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에 관계된 다양한 개체들을 연결하는 촉매적·촉진적 역량을 증진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등 가치적 능력 증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존엄성 실현의 가치를 키워주기 위한 사랑의 실천 교육이 필요하다. 본디 사람의 혼자는 인(人)이라 하였으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람은 인간(人間)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불어 사는 상호 관계 안에서 길러질 수 있을 것이며 양보, 희생, 봉사, 관심, 배려, 나눔 등의 사랑이라는 말로 포괄되는 실천적 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 서로가 교육자 및 학습자 위치가 아닌 동반자 및 상담자적 역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계를 형성할 때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므로 교육이 일순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이에 교육 이후 교육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둘째, 지역사회교육에 있어 다양한 인적·물적의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참여과정 안에서 긍정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실천 활동 역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다양한 학습 자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는 속담처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참여하여 토론·연구하는 실천적 학습조직 구성 등의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괄 관리하는 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 등의 사회적 환경조성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종합적 발전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의 교육자의 역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를 테면 촉진자, 촉매자, 동반자, 상담자 및 관리자 등이다. 지역사회 교육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실천적 모범을 통해 자극을 일으키며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학습자이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양한 관계 안에서 상호적 상승을 돕는 상담자 역할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해결에 있어 인적·물적자원을 조직·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자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사랑의 가치를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사회 교육활동을 토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실천모델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해보는 실천적 연구와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의 사례를 찾아내서 비교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의 요소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요소별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모델의 객관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활동의 특징 및 교육활동을 이끈 교육단체 및 교육기관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직의 역할과 교육활동의 방향을 정립하여 올바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토대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넷째 맥그린치 신부가 이룬 다양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 관련된 연구 뿐 만이 아니라 맥그린치 신부의 생애사, 사회사목에 관한 연구, 교회사목에 관한 연구 및 맥그린치 신부가 이루어낸 사회자본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곽삼근(2004). 지역경쟁력강화와 지역사회교육.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22차 지역사회교육 포럼.
- 고미영(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청목출판사.
- 골롬반회 한국지부(1993). 한국 선교 60년.
- 권은진(2014).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선(2002). 지역사회개발론. 서울:두남.
- _____ (2013). 지역사회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 김민호(2003). 지역운동 속의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 제주도 화북주공아파트 운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9(2). 21-46.
- 김신일(1995). 주민자치와 학습권보장을 위한 사회교육. 사회교육연구 19. 175-181.
- 김익균·고순철(1997).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의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89-314.
- 김정원(2007).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4). 35-61.
- 김중서(1982). 평생교육의 모색. 교육문제연구 제2집. 명지전문대학 교육문제연구소.
- 김중서·주성민(1990). 지역사회학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김진화·정지용(1997).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김진화·고영화·성수현(2007). 한국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3(4). 89-122.
- 남정걸(201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6판. 서울:교육과학사.
- 박상욱(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 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145-164.
- 박재형(1993).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성황석두루가서원.
- _____ (2006).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가톨릭출판사.

- 방정은(2013). 지역재생사업에서의 지역사회교육 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유미(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영철(1990). 內生的 地域開發에 關한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하나출판.
- 양창조(2011).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오혁진(2014).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집문당.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박영사.
- 유현옥(2005).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현실변화와 교육철학 연구의 과제. 평생교육학
연구 11(2). 141-160.
- 이성배(1992). 현대사회의 선교. 「사목」 163호.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이소연(2014).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교육협
회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래(2003).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홍 역(1994). 현대의 복음 선교: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개정판>. 서울: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항.
- 이혜주(2011). 지역중심 평생교육으로의 회귀: 그 필요성과 전략의 탐색. 평생학
습사회 7(1). 43-59.
- 임피제신부 기념사업회(2015). 임피제(P. J. 맥그린치)신부 기념사업회 발전에 따
른 연구.
- 이희수(2002). 평생교육의 진화와 지역사회교육의 갈림길.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
문집 18. 59-78.
- 정민승(2002). 평생교육 패러다임에서의 사회교육자: 위상과 역할. 평생교육학연
구 8(2). 41-59.
- 정지웅 편(2000). 약한자에게 활력을 주는 두 학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
울:교육과학사.
- 정지웅·이성우·정득진·고순철(2000). 지역사회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지웅(2005). 지역사회교육학 서설. 지역사회 종합연구-세계평화를 지향하며. 교육과학사.
-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 조용하·안상헌(2001).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동문사.
- 차경수(1982). 외국의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교육문제연구 제2집. 평지실업전문대학 교육문제연구소.
- 최일섭·류진석(2002).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진일(2003).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 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09). 해방 후 해외원조기관 및 단체의 지원 활동(3): 독일 미제레오르(Misereor).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허훈·김종수(2008).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적 모형과 한국적 적실성에 의한 농촌지역 개발방안.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8(2). 41-62.
- 홍숙희(2011). 지역거버넌스에 의한 부천 지역평생교육 체제 형성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중건(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정민사.
- Dave R. H.(1976).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Institution for Education.
- Dowling, M.(1999). Social exclusion, inequality and social work.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3(3), 245-261.
- G. Hillery(199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Lengrand, P.(1969). 「Perspectives in Lifelong Education」. Unesco Chronicle 15. No. 7/8.
- L. Nelson(1960). Community Structure and Change, New York:Macmilan,
- F. Habrison & C.A Myers(1964).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Mc Graw-hill.
- John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Macmillan.

Lucian Pye(1965). Modernization and the Individual Citizen, Repor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fo Modernization in Asia. Seoul:Korea University.

Julian & Lesley(2001). 200n Community learning is comrnunity development. Adult leaming, 12(9), 19-22.

P. Jarvis(1983).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Croom Helm.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 · 노경주 · 심종희 역(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창지사.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참고기사>

가톨릭시보(1961. 8. 20.) 291호.

양영철(2013. 11. 25).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4): 양모·젓소·돼지 그리고 신협... 마이더스의 손이 되다.

_____ (2013. 12. 09).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5): 제주개발에 자발적 협동의 불씨를 지피다.

_____ (2013. 12.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6): 한국 축산발전의 씨앗이 된 돼지 한 마리.

_____ (2013. 12. 30).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7): 제주를 한국최고의 양돈산업 전진기지로 만들다.

_____ (2014. 01. 0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8): 양털이 제주여성의 손에서 명품으로 탄생하다.

_____ (2014. 01. 2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9): 4H클럽 청소년, 이시들의 역사를 쓰다.

_____ (2014. 02. 11).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0): 꿈이 모여 십시일반의 기적이 이뤄지다.

- 양영철(2014. 03. 1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1): PL480... 또 다른 십시일반의 기적.
- _____ (2014. 06. 23).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7):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2.
- _____ (2014. 07. 06).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18): 하롤드 대주교가 본 맥그린치 신부 3.
- _____ (2014. 08. 25).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0): 돼지 파는 것도 정권의 말을 들어야 했다.
- _____ (2014. 09. 18).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1): 호스피스 병동 살리는 게 저를 기념하시는 일.
- _____ (2014. 11. 02).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2): 성 이시돌 의원의 탄생...환자가 몰려들다.
- _____ (2014. 11. 14).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3):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 이시돌...힘로를 걷다.
- _____ (2015. 01. 19).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5): 이시돌, 협동조합형 지역개발의 시대를 열다.
- _____ (2015. 01. 27). 제이누리.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26): 만인은 1인을, 1인은 만인을 위하여.
- 김현중(2005. 1. 29.). ‘오늘 광양성당서 한림수직 양모제품 세일판매’ 제주일보.
- 장태욱(2007. 8. 17.). ‘축산으로 선교와 사회복지 일구는 이시돌 목장’ 오마이뉴스.
- 좌동철(2013. 4. 28.).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 제주일보.
- 조승원(2010. 11. 29.). ‘아일랜드인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 헤드라인제주.
- 최혜경(2009.2). ‘영혼의 가난을 몰아낸 제주도의 성자 맥그린치 신부’ 행복이 가득한 집(2009. 2월호).
- The Far East. McGlinchey, P. J. “4H in Korea,” TFE. Mar. a959, pp. 14-15 ; “Hallim’s 4H Clubs,” TFE May 1959, p.6.

<참고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le.or.kr>
살레시오수녀회 홈페이지. <http://www.salesiansisters.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columban.or.kr>
성이시돌목장 홈페이지. <http://www.isidore.kr>
성이시돌요양원 홈페이지. <http://www.isidorehome.or.kr>.
성이시돌젊음의집 홈페이지. <http://www.youthhome.co.kr>
성이시돌피정의집 블로그. <http://www.isidore.or.kr>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제이누리. <http://www.jnuri.net>
제주일보 홈페이지. <http://www.jejunews.com>
천주교 미래사목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fpi.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홈페이지. <http://www.caritasseoul.or.kr>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http://www.grandculture.net>
행복이 가득한 집 홈페이지. <http://www.design.co.kr>.
헤드라인제주 홈페이지. <http://www.headlinejeju.co.kr/>
협성사회공헌상 인터뷰 동영상. <https://www.youtube.com>.
GoodNewsCATHOLIC 홈페이지. <http://www.catholic.or.kr>

<기타>

대통령령 제1384호(1958.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1891.

【ABSTRACT】

The Educational Meanings of the Social Pastoral
Activities by the Reverend P. J. Mcglinchey in Jeju

Kim, Kyeong-Ju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Since human growth is not only realized by regular education but also in the life linked to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owth of human beings, not that of knowledge or technology. In such a course of growth in life, education is recently attracting significantly greater attention than before due to th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ch involves well-being and healing. In particular, as the concept of *glocalization* has appear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s emphasized; the shift from the paradigm of school education based on teaching and learning to that of lifelong learning based on independent learning makes it necessary to implement community-based lifelong learning connected with the course of growth in life in a community,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unit of interrelationships in life. In this context, there is a case of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education as a course of growth in life: the social and pastoral activities to

realize human dignity by the Reverend Mcglinchey known as 'Father with blue eyes' or as 'Father Pig.'

While the research on the Rev. Mcglinchey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the results of his efforts to develop the community, there is no study on his efforts related to education as the foundation or process to realize community development. In this respect,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to determine educational meanings of his social and pastoral activities in Jeju. Specifically, his social and pastoral activities aimed to live up to love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the contents of the activities could be divided into community organization,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welfare, and humanity restoration. Then, his educational activities were reviewed within a diversity of social and pastoral activities. He provided educational activities connected with real life, including the activities to improve practical consciousnes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various personal and physical education conditions. He also organized the 4H club and the Isidore Association to promote educational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se educational activit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by the Rev. Mcglinchey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first, pursuit of growth into an independent citizen; second, comprehensive development through enhancement of community capacity; third, organization for educational support; fourth,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by living up to love. On the basis of Jeong's (2002) role model for educators, light was shedded on the Rev. Mcglinchey as an educator. Lastly, the results were put together to make a model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has given a practical case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at community education is essential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may become the found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such as spread of community welfare. It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ovided practical guidelines necessary for the current projects of creating lifelong learning cities and other

villages in pursuit of community development in various reg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continuously on the social and pastoral activities by the Rev. McGlinchey as well as studies aiming to apply the model in this study to communities.